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복태 연구위원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김둘순 연구위원
최천근 교 수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정책 심층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	복	태	연
공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	성	정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	미	경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	둘	순	연
	한성대학교	최	천	근	교
					수

요 약

이 보고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농업과 농업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헌 및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필요성과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결혼이민여성 정책 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실시 및 성공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개념을 “미래 농촌사회의 주역으로 여겨지는 결혼이민여성을 미래 농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및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 그필요성을 제도적·사회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의 필요성은 최근 농업이 과거 1차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젊고 생산력 높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법적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어 능력,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등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농촌 결혼이민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여성보다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 사회활동, 일자리 교육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가 뒷받침 해주는데, 한국어교육, 사회활동 교육, 일자리 교육이 모두 결혼이민여성의 지위 향상 및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 FGI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직업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직 진입에는 한국어 자격증의 소지여부가, 사회적 관계형성 부문에 있어서는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가공이나 유통관련 교육 및 민간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연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결혼이민여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 한국어 자격증, 전문인력화된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자신들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4가지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이 결혼이민 이후 농촌지역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요인을 공통요인과 구별되는 요인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먼저 공통요인을 보면 첫째, 성공사례 모두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해당분야에 전문 인력으로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다. 셋째, 전문 인력으로서 필요한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증을 획득하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결혼이민 이후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 습득을 두 사례 모두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TV를 보거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으로 습득하였다. 다섯째, 두 사례 모두 남편 또는 시부모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다. 한편, 사

례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역여성단체의 교육훈련, 일자리 마련, 일-가정 병행이 가능한 근무시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외부의 지원보다는 시부모 및 남편 소유의 재산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농업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FGI),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관계 부족, 낮은 한국어 수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화 총괄 기관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지원체계, 사회적 관계, 교육,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발굴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1>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요약)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지원 체계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총괄 기관 부재	·지역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부족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확장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강화
교육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 특화 프로그램 부족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일원화된 교육체계 부재 ·기초적 농업기술에 편중된 교육 ·전문인력 진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 부족	·전문인력화 대상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 ·결혼이민여성 전문농업경영주 양성 ·결혼이민여성 예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확대 ·경제활동준비 교육 ·6차 산업 관련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확대 ·1:1맞춤 교육 개선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발굴	·농촌사회의 결혼이민여성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부족	·지역사회 사회통합형 일자리 발굴 (결혼이민여성 농촌지도사, 결혼이민여성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 맞춤형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와인, 버섯 등 지역특산물 제조사) ·결혼이민여성 관심형 일자리 발굴(열대작물 재배 전문가 등)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수행 추진체계 4

제2장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 필요성

1.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개념 7
2.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 10
3.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선행연구 14
4.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현황 17

제3장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

1.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일반적 현황 31
2.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잠재적 역량수준 35
3.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 참여 현황 43
4.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위 47
5. 정부지원정책 수혜경험 및 요구 59
6.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3
7. 소결 75

제4장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사례를 통해 본 전문화 양상

1. FGI의 목적과 방법 77
2. FGI 분석 결과 78
3.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성공사례 분석 결과 105
4. 소결 136

제5장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정책과제

1. 연구요약	143
2. 정책과제	146

참고 문헌	161
--------------------	------------

표 차례

제2장

표 2-1. 농업 전문가의 시대별 개념 변천	9
표 2-2.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2006-2014)	12
표 2-3. 결혼이민자 현황 추이(2008-2015)	12
표 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내용	18
표 2-5. 농촌형 새일센터 현황	21
표 2-6. 1대1 맞춤형 교육현황	24

제3장

표 3-1. 결혼이민여성의 국적별 현황	32
표 3-2. 결혼이민여성의 혼인상태 현황	33
표 3-3. 결혼이민여성의 체류기간 현황	34
표 3-4. 결혼이민여성의 학력 현황	36
표 3-5.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현황	37
표 3-6.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	38
표 3-7.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 현황	39
표 3-8.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40
표 3-9.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만족도	41
표 3-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	42
표 3-11.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상태	43
표 3-12. 결혼이민여성의 직종현황	44
표 3-13. 결혼이민여성의 고용형태	45
표 3-14. 결혼이민여성의 임금현황	47
표 3-15.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월평균 소득	48
표 3-16.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종사자 지위	49

표 3-17.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	51
표 3-18.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교육수준	51
표 3-19.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연령	53
표 3-20.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한국어 수준	54
표 3-21.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사회참여 정도	55
표 3-22.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전반적 건강상태	56
표 3-23.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전반적 생활만족도	58
표 3-24.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 경험	59
표 3-25.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 필요성	60
표 3-26.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교육 경험	60
표 3-27.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교육의 필요성	61
표 3-28.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교육 경험	62
표 3-29.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교육의 필요성	62
표 3-30.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지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5
표 3-31.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지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도농비교)	69
표 3-32.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2
표 3-33.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도농비교)	74

제4장

표 4-1. FGI 개요	78
표 4-2. FGI 범주와 질문 내용	79
표 4-3. 성공사례 면접조사 내용	106
표 4-4. 성공사례 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108

제5장

표 5-1.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요약)	146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	---

제3장

그림 3-1. 도시지역 체류현황	35
그림 3-2. 농촌지역 체류현황	35
그림 3-3. 학력의 정도와 취업교육서비스를 받은 경험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 ...	6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농업분야에도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사업기술(IT) 등이 적용되면서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농업 종사자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2014년에 수립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농업은 과거 1차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산업으로 국가경제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현재 농촌사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그 변화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참여하는 노동력 수에 있어서 남성을 능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농업에서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은 한국농업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농업의 고

부가가치 창출과 발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농업의 잠재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사회는 노령화와 저학력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젊고 생산성 높은 인력이 농업 부문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들 여성농업인력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농업의 잠재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 사회는 구성원의 노령화와 저학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2000년 446만에서 2015년 292만으로 인구가 약 1/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¹⁾, 이러한 이농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낮아짐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낙후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김종선, 2014; 박영민, 2015).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젊고 생산성 높은 인력이 농업부문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목해야 할 변화는 농업 종사자의 인적 구성 변화이다. 최근 여성농업인의 수가 남성 종사자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미래 농업 성장의 주요 부문으로 꼽히는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을 전문 직업인으로서, 동시에 농촌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 현상과 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 남성 부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적 증가가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단지 농촌지역의 농업 유지를 위한 인력이 아니라, 농촌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인적자원으로 간주해야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농촌

1) 국민일보 위기의 농어촌... 인구 300만명 무너져,(2016,09,2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2054&code=11151100&cp=nv>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인력화는 농촌에 젊은 층들이 정착되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비단 농어촌 지역 미혼 남성의 개인적 선택 및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기반의 증진과 연관성이 있다(양순미, 2010).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지속적으로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전문인력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도농비교를 통해 농어촌 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결혼이민여성을 둘러싼 제도적·사회적 흐름과 구체적인 결혼이민여성농업인 육성 정책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에 대한 이슈를 고찰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및 역량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직종별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

의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직업, 학력, 연령, 직업별 종사자 지위, 직업별 월평균 소득, 직업별 주당 근로시간 등을 파악하여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영역(지역사회 활동, 경제적 활동 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 항목과 수치를 통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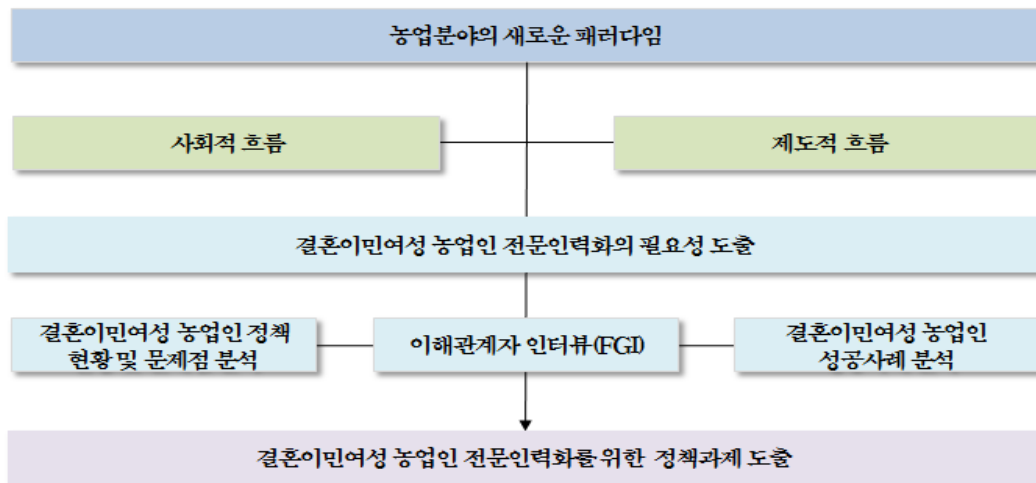
셋째,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결혼이민여성고 정책 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한국생활을 상당기간 한 여성결혼이민자들로 아시아 개도국 출신이면서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포커스 그룹(FGI)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인터뷰 문항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고려하여 다소 유동적으로 초점을 변화시켜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 대상 전문인력화 교육현황과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현황조사, 인터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수행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농업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적·제도적 흐름을 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의 필요성을 도출한 후,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정책현황과 이해관계자 인터뷰(FGI) 및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 2 장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 필요성

1.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개념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개념은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그리고 전문인력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결혼이민여성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결혼이민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²⁾’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여성은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여성 농업인을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두 계획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1호,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에서 제시되는 개념은 다소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혼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범주가 결혼이민여성으로 확대될 경우, 정책의 수혜대상 선정 과정에서 혼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법적·정책적 정의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범주를 유추해보면 두 가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집단이다. 농업인의 개념정리에 농업과 농촌을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6차산업화 논의에서도 농업을 포함하여 관련된 다양한 생산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문인력화는 사전적 의미로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여러 능력을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특정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정기환 외, 2002: p.97). 사전적 의미를 통해 농업분야의 전문인력화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하나는 농업인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은 농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을 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금융지식이 있는 사람, 농사 수확 시 사람을 쓰고 관리 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을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지식만 숙지하는 것이 전문인력이 아니라 금융지식과 인력 관리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의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농업분야가 아닌 2차나 3차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업종에서 정규직이 되거나 종사하는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전문분야로 진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농업인의 개념과 전문인력화의 개념을 토대로 정기환 외(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대해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여성농업인이 남성 농업인의 보조적 인력에 그치고 있다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성 농업인과 대등한 생산력과 경영능력을 지니는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한다는 의미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농업인을 현대와 미래의 농업이 요구하는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의미이다. 전자를 소극적 의미에서 협의의 전문인력화로, 후자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광의의 전문인력화로 정의하고 있다(정기환 외 2002: p.100 재인용).

표 2-1. 농업 전문가의 시대별 개념 변천

과거	현재	현재 이후
독농가	전문 농업인/전문여성농업인 핵심농업인/ 핵심여성농업인 화훼전업농/화훼전문가	○ 양돈전문가 - 비육돈 전문가 - 돼지인공수정 전문가 ○ 장미전문가 - 장미절화 재배 전문가 - 장미육종 전문가 - 장미양액 재배 전문가 - 유리온실 설계 전문가
모범 농업인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지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총괄적 개념)	세분화된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 정보를 지닌 전문가(technocrat)

자료: 정기환(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결혼이민여성을 미래 농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및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

2.1. 제도적 흐름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농업인은 한국농업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여성농업인은 농업에 참여하는 노동력 수에 있어서 남성을 능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농업에서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농업은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산업기술(IT)을 통해 생산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에게 적합한 분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가공, 포장, 유통 등 관리기술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발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정부는 농업 및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 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01~'05)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4개 부문 8개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2차 기본계획('06~'10)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4개 부문 23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3차 기본계획('11~'15)은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5개 부문 17개 과제가 추진되었으며, 4차 기본계획('16~'20)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5개 부문 48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차 기본계획의 핵심전략에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

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부터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라는 구체적인 과제가 명시되면서 교육, 창업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농촌사회 여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확대라는 정책과제 아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해 정착단계별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농협 등의 전문 영농교육시 결혼이민자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동법 제33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2. 사회적 흐름

최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의 제정을 통해 농촌사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사회는 노령화와 저학력 문제로 인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젊고 생산성 높은 충분한 인력이 농업부문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낮아짐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낙후성은 점차 심화되었으며 이에 농촌 생활에 대한 외부 유입이 보다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양순미, 2006; 박영민, 2015).

표 2-2.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2006-2014)

단위: 천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인구	48,372	48,598	48,949	49,182	49,410	49,779	50,004	50,220	50,424
농가인구	3,304	3,274	3,187	3,117	3,063	2,962	2,912	2,847	2,752
65세 이상(%)	30.8	32.1	33.3	34.2	31.8	33.7	35.6	37.3	39.1

자료: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www.index.go.kr (접속일시: 2016.11.03.)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농촌지역에 감소하는 내국인을 대신하여 결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의 수는 약 15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여성이 약 13만 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적은 경인지역의 결혼이민자는 2013년 기준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매년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표 2-3. 결혼이민자 현황 추이(2008-2015)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성별	남자	14,753	15,876	18,561	19,650	20,958	22,039	22,801	23,272
	여자	107,799	109,211	123,093	125,031	127,540	128,826	128,193	128,336
지역	경인	68,374	69,204	77,401	78,372	79,469	79,905	78,802	78,769
	영남	25,316	25,654	29,033	29,608	30,642	31,689	32,036	32,506
	호남	12,480	13,382	15,317	15,489	15,745	15,852	15,936	16,001
	충청	12,240	12,654	14,678	15,283	16,067	16,545	16,528	16,705
	기타	4,142	4,193	5,225	5,462	5,668	5,773	5,851	5,981

자료: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www.index.go.kr (접속일시: 2016.11.03.)

주: 경인 : 서울, 경기, 인천 /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호남 : 광주, 전북, 전남 / 충청 : 대전, 충북, 충남 / 기타 : 강원, 제주 등

2018년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약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9%에 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의 경우에는 더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에 이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7만4,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에서 3.2%에 달하고, 여성농가인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에 젊은 층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비단 농어촌 지역 미혼 남성의 개인적 선택 및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기반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양순미, 2006).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는 농촌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일 뿐,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에게 특성화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세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 지원”이 제시되어, 농촌사회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농촌사회에서의 여성의 중요성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향후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발전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범주에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인력화는 미래의 농촌사회의 발전과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선행연구

글로벌 시대의 진입으로 결혼이민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충청남도, 2011; 박영민, 2015). 결혼이민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 결혼이민자는 150,994명으로 2006년(93,786명)에 비하여 61% 가량 증가하여 결혼이민자가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사증 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3년간 평균 증가율은 0.7%이었으나 2002년 이후 매년 28%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외국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이처럼 우리사회의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정착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의 정착 및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양순미, 2006), 국가 및 개인차원에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연구자들의 관심은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이슈가 제기된 초반부터 다양한 분야에서도 제기되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경제생활 및 취업과 관련된 연구(김영혜 외, 2009; 심인선, 2008; 이혜경, 2005; 윤형숙, 2004; 강유진, 1999)를 비롯한 취업실태 및 욕구 분석(정기선 외, 2007), 이주여성 자활능력 강화(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07), 취업지원(김승권 외, 2010; 김영혜 외, 2009) 등에 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에 주목한 성과물들이다. 이 연구들은 양적인 경제활동 측면에 집중한 연구이다 보니, 경제활동참여의 질적 수준 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3)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검색일 2016.9.12.)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경제적 활동 진입여부 및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배옥현 2015, 이규용 2012: 이은주 2014). 이규용(2012)은 한국어 능력과 취업교육 참여 경험은 결혼이민여성의 시장 노동참여율과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고, 이은주(2014)는 베트남 여성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왔으나 서툰 한국어 능력 탓에 각종 경제 및 사회활동에서도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배옥현(2015)은 취업률 제고와 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제고와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취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인적자본론 측면에서 접근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시장임금이 높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가정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양적인 경제활동참여에 방점을 둔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론이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에 선 선행연구(국미애, 2015)와 함께,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과 관련해서도 인적 자본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양인숙 외, 2010)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서는 이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점과 결혼을 한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탓도 있다고 생각된다(박재규, 2013).

그러나 다양한 결혼이민여성 취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요인을 살피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적 이해의 부족, 언어 갈등에 따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의견교환, 사회적지지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Liu 외, 2001, 박재규, 2006; 양순미, 2006; 임석희, 2009; 양순미, 2010; 김경아, 2012 : 이형하, 2012; 서민숙 외, 2013; 조용만 외, 2013).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

지 체계의 존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규(2006)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지역 및 사회의 지지가 국내생활 적응에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석희(2009)의 연구에서는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한국인 친구가 많으며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순미(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향후 농업활동참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향후 지역사회활동 참여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아(2012)는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의 지지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만 외(2013)는 이민자가 공동체에 빠른 적응 및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접촉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이미 오랜 한국생활을 한 이민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 참여로 인한 교체 기회 및 사회적 지지의 증가로 개인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유지케 함으로써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양순미 외, 2009, 배경희, 2013).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자립지향적(自立指向的)인 사회적 지원제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활·자립하며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양순미, 2006).

현재 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은 미래농업 및 농촌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은 저학력이면서 전문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고학력이면서 전문자격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농촌 사회에서 전문 인적자원으로 일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어 능력 및 교육훈련 요인도 결혼이민자 삶의 만족도 및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경, 2009; 김기홍 외, 2011; 이규용, 2012; 박재규 2013; 이태정 외 2013; 이은주, 2014; 박미숙 외 2014; 김미정 외 2015). 김유경(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언어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기홍 외(2011)은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강화해 갈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능력이 사회자본 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용(2012) 역시 결혼이민자의 정착 및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하여 직접 일자리, 교육훈련, 노동시장 인프라, 보조금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태정 외(2013)는 한국어 실력 등의 문화적 적응관련 요인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큰 효과가 없었으나, 직업훈련 이수와 남편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은주 외(2014)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자녀양육 교육과 상담 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미숙 외(2014)는 이주여성들은 아이에게 당당한 어머니가 되고자 취업을 원하지만, 각 개인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정보부재, 잘못된 사회의 편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4.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현황

농촌 지역의 이농현상 및 지속적인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감소되면서 농촌 지역의 낙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발전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여성농업인’ 및 ‘결혼이민여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귀농·귀촌인구 및 결혼이민 여성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농업인구의 다양성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문화 등의 정책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농촌의 관련 서비스는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정의 및 역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및 지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운영 등을 규

정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4)5)』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결혼여성이민자 및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다.

4.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촌형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림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협력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지원연계, 방문교육 등 7개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마다 공통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요자 기호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영역별 프로그램은 <표 2-4>와 같다.

표 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내용

사업 구분	사업 영역	내용	
		공통필수	선택
기본 사업	가족	·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	·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아버지 교육

-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목적)에 제정 목적이 기재되어 있음.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5)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구분	사업 영역	내용	
		공통필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 자녀생활지도 등
	성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부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이해 프로그램 · 예비·배우자교육 프로그램 ·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교육 ·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 이주민과 인권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기초소양교육 ·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워크넷, 새일센터, 고용 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 교육(4시간 이상)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적응교육 · 소비자·경제교육 · 학업지원반 운영 및 연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인식개선 · 결혼이민자 멘토링프로그램 등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위기가족 긴급지원,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
	홍보 및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홈페이지운영 등 	
	방문 교육 서비 스	세부사업영역	내용
		한국어교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부모교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 교·가정 생활지도) ·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영역: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영역: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총 실인원은 106,0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이민자 기본사업(상담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 이용 실인원은 53,731명이고, 영역별 결혼이민자 참여수를 보면 사회통합 영역이 37,61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지원 대상의 분류는 정착단계에 근거한다. 먼저 정착초기단계로 도식적으로는 3년 미만으로, 한국문화에 낯설고 한국어 1, 2단계 정도를 배우고 있는 집단으로써, 이 집단에게는 한국어와 기본적인 부부 의사소통이 필요한 통역을 제공하거나, 낯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해서 센터가 멘토를 연결해 주거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문화센터는 3년 정도 지나면 가정생활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녀서비스에 포커스를 두고, 부모교육 및 자녀 언어발달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한편, 내국인의 경우, 한 지역에선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지역의 동장 혹은 통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정도의 사회적 관계 및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맥락에서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의 저변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사업 서비스 구성요소를 보면 3년 미만에 대한 서비스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정착 초기단계에 필요한 멘토 소개나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이 주를 이룬다. 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같은 경우는 입국 5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입국 5년 이상이 넘으면 일단 무조건 집합교육으로 센터로 나와야 한다.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여성들은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 지리나 한국생활에 적응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형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기존의 재직 근로자 및 실업자 위주의 고용정책에서 가사, 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된 정책이다. 새일

센터 사업은 상담, 구직, 직업훈련, 직업알선, 취업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패키지사업이란 점에서 정보가 제한된 경력단절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 여성취업률⁷⁾도 정책이전에 51.8%에서 62.1%로 10.3%p 가 상승⁸⁾(※ 우리나라 여성취업자수 : '09년 9,772천명 → '10년 9,914천명, 142천명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도시지역에 집중된 효과만 있었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는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새일센터의 수가 2013년 기준 전국 118개소 중 7개소의 센터만이 군에 위치한다는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센터의 교육내용이라는 질적인 면에도 존재했다. 이런 문제점에 기인하여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환경에 맞게 세분화하였고, 그중 하나로 농촌형 새일센터가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농촌 새일센터는 강원, 충북, 충남(2개소), 전북, 제주도에 총6개소⁹⁾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표 II-5>와 같다.

표 2-5. 농촌형 새일센터 현황

도	시·군	새일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강원	영월군	영월새일센터	영월군여성회관	SNS 마케팅 교육과정
충북	영동군	영동새일센터	영동군 여성회관	멀티오피스 사무원 양성
				농산물 온라인 장터 창업 및 실무자 양성
				영동와인 &푸드 마스터 양성
충남	부여군	부여새일센터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지역사회 행정실무 과정
				백제역사문화 지도사 과정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2008년 5월에 제정, 근거법률에 따라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했고, 4대과제,3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4대정책영역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돌봄·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일·가정양립 기업환경조성, 경력단절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으로 영역이 구분되었다.

7) 취업률 = 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 취업자)

8) 통계청, KOSIS DB. <https://kostat.go.kr> (검색일 2016.11.1)

9)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8_01_01_view.jsp (검색일 2016.11.1)

도	시·군	새일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충남	홍성군	홍성새일센터	홍성군	결혼이주여성 자국 농산물 생산자 과정
전북	완주군	완주새일센터	완주군청 근로자종합복지관	생산제조품질관리원 자동차부품제조양성과정
제주	서귀포시	한라새일센터	제주도 농업기술원	페백이야기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현황(2016년 10월 기준)

새일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 인턴제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발생한 실업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새일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의 열망과 적절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역의 중심적인 일자리지원 기관으로써 기존의 센터에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회활동이 제한 되고 우리나라의 농업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일센터의 활동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인 여성권익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농촌형 센터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삶의 활력소 되어 단순한 취업률 증가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정부의 활동을 구체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위의 기관들의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홈페이지 방문자수, 게시물의 조회수 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전히 농촌여성인구에 비해서 새일센터의 절대적인 수도 부족하며, 특정새일센터의 경우에는 농촌형 새일센터의 특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의 일회성 성격이 강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한국생활 정보제공, 고충상담, 통역지원, 긴급 상담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기능과 자립수준 진단 및 생활언어 교육코너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생활회화의 경우 5개국으로 번역하여 다국어 번역 자립역량 진단표를 같이 제공한다. 또한 농촌 다문화사회 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농업테마 활동을 중심으로 농촌테마 활동 다문화자녀 공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연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 또는 마을에서 시·군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 적격성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15년도에는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332가구중 다문화가족 1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4,800여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하였다. '16년도에는 총 사업물량 300여 가구 중 15가구를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노후·불량 주택 가보수에 지원하며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원하되,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시켰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문화체험, 가족구성원간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가족단위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농식품부가 연계하고 총 2,480명을 목표로 실시한다. 결혼이민에 대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경우 780여명이 실시하여 목표(700명) 대비 111.4% 초과 달성하였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의 경우 1,042명이 실시하여 목표 대비 106.3% 초과 달성하였다. '16년도에는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일반 및 농기계 사용법 교육, 현장체험 가공 실습 등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기초농업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물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과정의 경우 농촌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에 기초, 1:1맞춤사업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며,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에서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주관한다.

4.2.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멘토-멘티 과정을 확대하여 농촌공동체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기존 여성농업인과 신규유입 여성농업인의 멘토-멘티 체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가입을 활성화하여 농촌여성 갈등해소 등에 기여하는 다양한 농촌여성 융화를 위한 노력 또한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의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1:1 맞춤형 농업교육 실시한다. ‘15년에는 700여명을 계획했으며, ‘16년에는 770명을 계획하였다.

표 2-6. 1대1 맞춤형 교육현황

구 분	지역농협 (개소)	'14년도 교육인원 (쌍)	'15년도 배정인원		
			일반	고부가 가치작물※	계
경 기	133	74	67	3	70
강 원	66	72	62	3	65
충 북	58	65	54	6	60
충 남	119	104	86	9	95
전 북	77	90	79	6	85
전 남	126	98	81	9	90
경 북	141	112	96	9	105
경 남	117	93	81	9	90
세 주	19	23	17	3	20

구 분	지역농협 (개소)	'14년도 교육인원 (쌍)	'15년도 배정인원		
			일반	고부가 가치작물※	계
서 울	12	1	1	0	1
부 산	13	2	2	0	2
대 구	19	2	2	0	2
인 천	17	2	2	0	2
광 주	14	2	2	0	2
대 전	12	2	2	0	2
울 산	15	9	6	3	9
합 계	958	751	640	60	700

출처 : 농림축산부 2015년도 이민여성농업인 1:1맞춤 농업교육 추진계획
 주: 시군별 4명 기준이며, 14년도 수료인원을 기준으로 배정인원을 조정

이를 통해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기획공모하여 추가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인단체 가입을 권장 및 유도하여 등 활성화하여 농촌여성 갈등해소 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여성농업인단체 등에 가입하여 농촌지역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착단계별 기초 농업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영농교육 확대와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 운영,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등 결혼이민여성의 한글, 생활교육 등을 통한 정착 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와 농협에서는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의 연차별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이주여성 직업(농업)역량 및 자존감을 강화¹⁰⁾시킬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은 프로그램을

10) 이주여성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다음 논문을 참조. 양순미 등 4인,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2호(2010) 153-184

통해서 일상생활 중에는 만나기 힘든 자신만을 위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으며, 본인의 삶에서 실질적 일인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심리적 자존감을 강화해줌으로써 농촌에서의 삶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은 지역에서 본인의 역할이 공식화되고, 농업분야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그 지역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화 및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도시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농촌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고 자신이 남편 및 이웃과 같은 일을 감당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주여성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멘토의 임의로 정해진다는 점과 그 교육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다는 점 때문에 교육과정이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교육의 연속성 차원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업이 분야별로 습득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일률적인 교육기관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기진작과 프로그램에 대한 몰입을 위해 프로그램 보조역할(보수등의 경제적 유인제공) 및 다른 유인¹¹⁾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1:1 맞춤형 농업교육 이외에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결혼이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 등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을 '15년도 980가구에서 '16년도 980가구로 지속 운영한다. 농진청에서는 결혼이민여성/다문화자녀 잠재역량 향상 프로그램 자료집 등 다문화 리더 육성 및 다문화 사회 변화 대응방안 개발한다. 이외에도 어린이날 기념 다문화 가족 초청 체험교실 등 농업테마 활용 다문화 자녀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체험 지원하고 번역솔루션 언어 추가, 다문화 연구 성과물 추가 탑재 등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 생활애로 및

11) 이주여성의 경우 고향을 갈 기회가 많지 않아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이를 위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그에 준하는 보상을 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생활설계 컨설팅 상담, 정보제공, 농업농촌 생활용어 및 회화 코너를 통한 한글 습득 지원, 농업유관기관 정보화 교육과 연계하여 사이트 사용법 교육 등을 운영한다. 또한 여가부와 연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노후·불량주택의 주방 및 화장실을 현대화하고, 이 외 지붕 개량, 단열성능 개선, 난방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비를 세대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는 개인 또는 마을에서 시·군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 적격성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15년도에는 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대상 332가구를 중 다문화가족 1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4,800여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하였다. ‘16년도에는 총 사업물량 300여 가구 중 15가구를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노후·불량 주택 가보수에 지원하며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원하되,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시켰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농협과 협력하여 결혼이민여성에게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문화체험, 가족 구성원간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가족단위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부, 여성가족부, 농식품부가 연계하고 총 2,480명을 목표로 실시한다. ‘15년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은 가공실습교육 포함 950명이 실시하여 목표(750여명) 대비 126.7%를 초과 달성하였다. 결혼이민에 대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경우 780여명이 실시하여 목표(700명) 대비 111.4% 초과 달성하였다.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과정의 경우 1,042명이 실시하여 목표대비 106.3% 초과 달성하였다. ‘16년도에는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일반 및 농기계 사용법 교육, 현장체험 가공 실습 등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기초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결혼

이민여성과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물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 지원 과정의 경우 농촌 결혼이민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1맞춤사업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며,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에서 농촌 정착 지원 과정을 주관한다. 이 외에도 농협에서는 지역농협을 활용한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하기 위하여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며,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4.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인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확대를 실시하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양성평등정책, 성별통계 생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협의회), 귀농(귀촌) 정착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가족공동경영협약,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통보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증진시키고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사, 생활지도사 대상 정부지원서비스 전반에 걸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국생활 정보제공, 고충상담, 통역지원, 긴급 상담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1577-1366)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국어 번역이 가능한 상담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고 상담 및 교육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자립수준 진단 및 생활언어 교육코너를 병행 운영하공 있으며, 농촌생활회화의 경우 5개국으로 번역하여 다국어 번역 자립역량 진단표를 같이 제공한다. 또한 농촌 다문화사회 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고 콘텐츠 업그레이드, 현장 정보화 교육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의 기능을 강화·운영 내실화를 꾀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잠재역량 향상 프로그램, 변화 추적 등을 통한 다문화리더 육성 및 다문화사회 변화 대응방안 등을 개발한다.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농촌 테마 활동 다문화자녀 공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5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사랑방 운영에 대해 26회 실시하여 찾아가는 현장방문 및 농업기술지원 등을 통한 실용성 및 현장성을 강화하고, 다문화 공동체 활동 및 관계향상 프로그램은 총 5종 개발하여 농업테마활동 다문화자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3종, 외국인 노동자 적응 가이드 개발은 2종, 정부부처 및 정책사업 현장 지원 자료 발간 보급은 4종 실시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또한 실시되고 있다. 농진청에서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및 기초점검정비 기초능력배양 등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완화 및 농작업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귀농,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교육 운영한다.

4.4. 소결: 현 결혼이민여성 및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판적 고찰

과거 1차 산업으로써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농업이 최근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사업기술(IT)등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기대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는 노동력 수에 있어서 남성을 능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농업에서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등의 법적 지원과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에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특성화된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이 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시스템은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첫째,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및 농촌사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전문인력화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농촌지원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어려우며, 향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실행함에도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들이 주로 기초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심화단계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 및 기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역별 또는 기관별 칸막이가 높아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 기관별 또는 지역별 결혼이민여성 교육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도 농업교육 이외에 금융교육, 사회적 지지, 자격증 교육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제도는 농업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도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농촌의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는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관련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는 전문인력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기술 위주의 단편적인 지원시스템이 아닌, 초기 농촌사회의 정착단계부터 정착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통합단계로 주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장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실태조사¹²⁾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경제활동 현황을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취업중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직종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일반적 현황

1.1. 국적별 현황

여성결혼이민자의 도농간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1>과 같

12) 2009년 다문화 실태조사에 이은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로 2015년 7월 동안 전국의 다문화 가족 15,341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2011년 다문화 지원법 개정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구뿐 아니라, 일반 귀화자 가구도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 지역, 출신국적을 반영한 체계적 표본 설계에 따라 결혼이민자·귀화자, 한국인 남편 등 배우자, 만 9세~24세 자녀 조사표 등 총 4종의 조사표가 별도로 개발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3.2.26.).

다. 먼저, 조사대상 17,109명 중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11,580명 (67.7%),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5,529명(32.3%)으로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약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여성이 전체의 결혼이민여성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 모두 상대적으로 세 국적의 결혼이민여성의 거주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도시에는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여성이 2,593명(22.4%), 농촌지역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여성이 1,238명 (2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에는 도시지역과

표 3-1. 결혼이민여성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중국	2593 (22.39)	1200 (21.70)	3,793 (22.17)
중국(한국계)	2090 (18.05)	588 (10.63)	2,678 (15.65)
일본	926 (8.00)	559 (10.11)	1,485 (8.68)
대만, 홍콩	497 (4.29)	53 (0.96)	550 (3.21)
베트남	1498 (12.94)	1238 (22.39)	2,736 (15.99)
필리핀	829 (7.16)	617 (11.16)	1,446 (8.45)
그 외 동남아시아	931 (8.04)	638 (11.54)	1,569 (9.17)
남부아시아	376 (3.25)	134 (2.42)	510 (2.98)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875 (7.56)	365 (6.60)	1,240 (7.25)
미주, 유럽, 태양주	845 (7.30)	106 (1.92)	951 (5.56)
기타	120 (1.04)	31 (0.56)	151 (0.88)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달리, 베트남, 필리핀계가 월등히 많고 이에 비해 중국(한국계)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각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성향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으로 판단된다.

1.2. 혼인상태 현황

결혼이민여성의 혼인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간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15,561명(90.95%), 이혼·별거 876명(5.12%), 사별 433명(2.53%), 미혼 239명(1.40%)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이 도시 거주자보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은 미혼, 사별, 이혼·별거 중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결혼이민여성의 혼인상태 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미혼	215 (1.86)	34 (0.43)	239 (1.40)
배우자 있음	10321 (89.13)	5240 (94.77)	15,561 (90.95)
사별	329 (2.84)	104 (1.88)	433 (2.53)
이혼·별거	715 (6.17)	161 (2.91)	876 (5.12)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X^2(3)=158.75$, $p\text{-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1.3. 체류기간별 현황

여성결혼이민자의 도농간 체류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여성 전체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6~10년의 결혼이민여성이 6,147명(3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1~15년 4,124명(24.10%)으로 뒤를 이었다. 6~15년의 체류기간을 지닌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높은 현상은 도시와 농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체류기간을 3단계 정착단계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3년 미만이 초기 정착단계, 3년에서 10년까지는 정착 안정화 단계, 10년 이상은 사회통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은 약 36%가 이미 사회통합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사회통합단계로 진입할 잠재적 결혼이민여성이 약 34%에 달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사회통합 단계로 진입하는 인력이 39.32%이며, 사회통합 단계에 진입한 집단도 41.3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회통합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3-3. 결혼이민여성의 체류기간 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2년 이하	272 (2.35)	148 (2.68)	420 (2.45)
3~5년	1749 (15.10)	920 (16.64)	2,669 (15.60)
6~10년	3973 (34.31)	2174 (39.32)	6,147 (35.93)
11~15년	2935 (25.35)	1189 (21.50)	4,124 (24.10)
16년 이상	2651 (22.89)	1098 (19.86)	3,749 (21.91)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X^2(4)=72.07$, $p\text{-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3-1. 도시지역 체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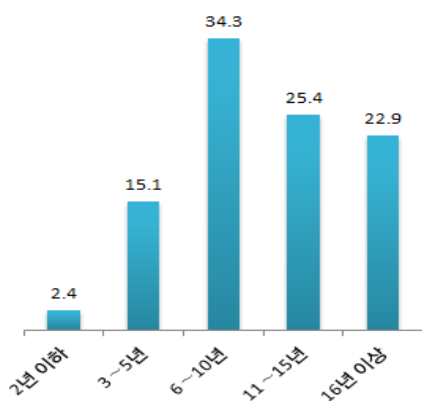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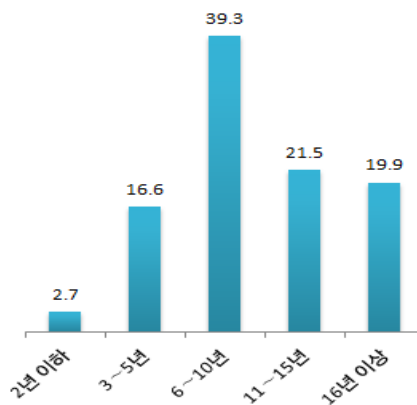


그림 3-2. 농촌지역 체류현황



2.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잠재적 역량수준

결혼이민여성의 잠재적 역량은 역량개발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학력, 연령, 한국어 수준, 사회참여,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잠재적 역량수준을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를 통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잠재적 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1. 학력 현황

도농간 결혼이민여성의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결혼이민여성이 각각 4,571명(39.47%), 2,346명(42.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결혼이민여성을 비

율을 살펴보면, 도시는 약 37%, 농촌은 약 26%로,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고학력의 결혼이민여성의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은 농촌지역이 약 32%로 도시지역 (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결혼이민여성의 학력 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무학	135 (1.17)	62 (1.12)	197 (1.15)
초등학교	712 (6.15)	456 (8.25)	1,168 (6.83)
중학교	1824 (15.75)	1249 (22.59)	3,073 (17.96)
고등학교	4571 (39.47)	2346 (42.43)	6,917 (40.43)
대학교(4년제 미만)	1412 (12.19)	714 (12.91)	2,126 (12.43)
대학교(4년제 이상)	2376 (20.52)	625 (11.30)	3,001 (17.54)
대학원	550 (4.75)	77 (1.39)	627 (3.66)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X^2(6)=427.51$, p-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2. 연령 현황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5>와 같다.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 30-39세에 포함되는 결혼이민여성이 각각 4,140명(35.75%), 1,935명(35.0%)으로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29세 이하의 연령을 지닌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이다. 이

는 이농현상으로 내국인 젊은 층의 유입이 낮아지는 농촌사회에 젊은 연령의 결혼이민여성이 진입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농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29세 이하	2,498 (21.57)	1537 (27.80)	4,035 (23.58)
30~39세	4140 (35.75)	1935 (35.00)	6,075 (35.51)
40~49세	2874 (24.82)	1316 (23.80)	4,190 (24.49)
50~59세	1376 (11.88)	567 (10.26)	1,943 (11.36)
60세 이상	692 (5.98)	174 (3.15)	866 (5.06)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chi^2(4)=131.60$, p-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3. 한국어 수준¹³⁾

여성결혼이민자의 도농간 한국어 수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6>

- 13) 한국어수준은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각각 5점 척도(1: 매우 잘한다, 2: 약간 잘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못한다, 5: 전혀 못한다)로 응답한 것을 평균점수를 구한 다음, 평균점수의 수준이 1.0-1.5점 사이는 매우잘한다 영역에, 평균점수가 1.75-2.5점 사이인 경우 약간 잘한다의 영역에, 평균점수가 2.75-3.25사이인 경우 보통이다의 영역에, 평균점수가 3.5-4.25점 사이인 경우 별로 못한다에, 평균점수가 4.5-5.0점에 해당한 경우에는 전혀 못한다의 영역으로 배분하여 측정하였다.

과 같다. 전체적으로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30.57%로 가장 높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도농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3,842명(33.18%), 농촌지역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679명(30.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어 수준이 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80%이상으로,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기초적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심화단계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6.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매우 잘한다	3842 (33.18)	1389 (25.12)	5231 (30.57)
약간 잘한다	3001 (25.92)	1568 (28.36)	4569 (26.71)
보통이다	2995 (25.86)	1679 (30.37)	4674 (27.32)
별로 못한다	1546 (13.35)	812 (14.69)	2358 (13.78)
전혀 못한다	196 (1.69)	81 (1.47)	277 (1.62)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chi^2(4)=121.62$, p-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4. 사회참여 현황¹⁴⁾

여성결혼이민자의 도농간 사회참여 정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간 참여한다’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7.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 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20 (1.90)	222 (4.02)	442 (2.58)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691 (5.97)	521 (9.42)	1212 (7.08)
보통이다	2253 (19.46)	1255 (22.70)	3508 (20.50)
약간 참여한다	5113 (44.15)	2121 (38.36)	7234 (42.58)
매우 참여한다	3303 (28.52)	1410 (25.50)	4713 (27.55)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X^2(4)=189.19$, $p\text{-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14) 사회참여의 정도는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여부, 지역주민 모임 참여여부, 종교 활동 참여여부, 민간단체 활동 참여여부에 응답한 것을 모두 합하여,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영역에, 1개라도 참여한 경우는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에, 2개 참여한 경우는 보통이다, 3개 참여한 경우는 약간 참여한다에, 4개 모두 참여한 경우는 매우 참여한다 영역으로 배분하여 측정하였다.

2.4. 전반적인 건강상태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3%(매우 좋다 25.5%, 매우 좋다 39.13%)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양호한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호하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농촌지역 거주자에서 1.45% 더 높았다. 하지만,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연령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20-30대가 많다는 점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1.45% 수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표 3-8.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매우 좋다.	2969 (25.64)	1393 (25.19)	4362 (25.50)
좋은 편이다.	4460 (38.51)	2234 (40.41)	6694 (39.13)
보통이다	2943 (25.41)	1483 (26.82)	4426 (25.87)
나쁜 편이다	1030 (8.89)	375 (6.78)	1405 (8.21)
매우 나쁘다	178 (1.54)	44 (0.80)	222 (1.30)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chi^2(4)=42.75$, p-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5. 생활 만족도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77% '(매우 만족한다 25.11%, 약간 만족한다 31.66%)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이 도시지역보다 4.5%로 높았다. 하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31.78%를 포함한 45%에 가까운 결혼이민여성 여성이 생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이들 집단이 상황에 따라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거나, 농업을 떠나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3-9. 결혼이민여성의 생활 만족도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매우 만족한다	2876 (24.84)	1420 (25.68)	4296 (25.11)
약간 만족한다.	3552 (30.67)	1865 (33.73)	5417 (31.66)
보통이다	3906 (33.73)	1757 (31.78)	5663 (33.10)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1062 (9.17)	429 (7.76)	1491 (8.71)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84 (1.59)	58 (1.05)	242 (1.41)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X^2(4)=32.70$, p-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2.6. 사회적 관계¹⁵⁾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결혼이민여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이민여성이 43.21%(7,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적 관계를 판단하는 5개 질문 중 5개 모두 응답한 결혼이민여성은 8.76%(1,498명)에 불과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와 농촌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생활 만족도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볼 때, 결혼이민여성이 생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여성이 사회적 관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생활 만족도의 질 차원의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사회적 관계 0/5개	5,047 (43.58)	2,346 (42.43)	7,393 (43.21)
사회적 관계 1/5개	1,692 (14.61)	924 (16.71)	2,616 (15.29)
사회적 관계 2/5개	1,286 (11.11)	647 (11.70)	1,933 (11.30)

- 15) 여성결혼이민자의 도농간 사회적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경우 1로 측정하고, 아니오라고 답하면 0으로 측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사회적 관계의 값으로 측정하였다. 첫째 질문은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할 사람(한국인)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한국인)이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이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여가나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사람(한국인)이 있는가? 다섯 번째는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한국인)이 있는가?

범주	도시	농촌	계
사회적 관계 3/5개	1,181 (10.20)	607 (10.98)	1,788 (10.45)
사회적 관계 4/5개	1,328 (11.47)	553 (10.00)	1,881 (10.99)
사회적 관계 5/5개	1,046 (9.03)	452 (8.18)	1,498 (8.76)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X^2(5)=25.76$, p-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 농촌거주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 참여 현황

본 장에서는 취업 중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직종, 고용형태, 임금 등의 경제활동의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3.1. 취업 상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결혼이민여성 중 61.4%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7,062명(60.98%), 농촌지역은 3,450명(62.40%)이 현재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상태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일하지 않고 있음	4,518 (39.02)	2,079 (37.60)	6,597 (38.56)
일하고 있음	7,062 (60.98)	3,450 (62.40)	10,512 (61.44)
소계	11580 (100.0)	5529 (100.0)	1,7109 (100.0)

 $\chi^2(1)=3.15$, p-value=0.076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2. 직종 현황

현재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종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단순노무종사자가 2,923명(27.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전문가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비율(19.85%)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농림어업 숙련자(12.7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2. 결혼이민여성의 직종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관리자	14 (0.20)	2 (0.06)	16 (0.1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02 (19.85)	284 (8.23)	1,686 (16.04)
사무종사자	423 (5.99)	83 (2.41)	506 (4.81)

범주	도시	농촌	계
서비스종사자	1228 (17.39)	585 (16.96)	1,813 (17.25)
판매종사자	577 (8.17)	191 (5.54)	768 (7.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 (0.34)	440 (12.75)	464 (4.4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34 (8.98)	215 (6.23)	849 (8.0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72 (13.76)	515 (14.93)	1487 (14.15)
단순노무종사자	1788 (25.32)	1135 (32.90)	2923 (27.81)
소계	7062 (100.0)	3450 (100.0)	10512 (100.0)

$X^2(8)=120.00$, $p\text{-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3. 고용형태

현재 취업중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 신분이 3,772명(35.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상용근로자 유형의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무급가족종사자가 16.0%로 도시지역보다 약 13%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결혼이민여성의 고용형태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상용근로자	2598 (36.79)	1174 (34.03)	3772 (35.88)
임시근로자	2100 (29.74)	975 (28.26)	3075 (29.25)

범주	도시	농촌	계
일용근로자	1258 (17.81)	508 (14.72)	1766 (16.8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285 (4.04)	55 (1.59)	340 (3.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568 (8.04)	186 (5.39)	754 (7.17)
무급가족종사자	253 (3.58)	552 (16.00)	805 (7.66)
소계	7062 (100.0)	3450 (100.0)	10512 (100.0)

$\chi^2(8)=551.92$, $p\text{-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3.4. 임금

현재 취업 중인 결혼이민여성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100-2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결혼이민여성이 4,872명(46.35%)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시 지역의 결혼이민자 비율은 약 23%, 농촌지역은 약 10%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간의 고소득층의 비율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5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은 22.87%로, 도시지역보다 약 12%p 높게 조사되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착취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4. 결혼이민여성의 임금현황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50만원 미만	713 (10.10)	789 (22.87)	1502 (14.29)
50~100만원 미만	1317 (18.65)	800 (23.19)	2117 (20.14)

범주	도시	농촌	계
100 ~200원 미만	3346 (47.36)	1526 (44.23)	4872 (46.35)
200~300만원 미만	988 (13.99)	220 (6.38)	1208 (11.49)
300만원 이상	698 (9.88)	115 (3.33)	813 (7.73)
소계	7062 (100.0)	3450 (100.0)	10512 (100.0)

$X^2(4)=538.82$, p-value=0.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들과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여성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과 도시지역을 비교하지 않고 직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4.1. 월평균 소득

현재 취업 중인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월평균 소득을 분석한 결과, 관리자 직종의 87.5%(14명)가 300만원 이상이라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7.4%), 사무 종사자(36.56%), 서비스 종사자(47.21%), 판매 종사자(42.9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51.47%), 장치·기

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68.12%), 단순노무 종사자(53.58%)가 100-20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89.87%(417명)가 월평균 50만원 미만 이라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 임금체계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고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을수록 저임금보다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통해 그들의 임금수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5.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구 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관리자	0 (0.00)	0 (0.00)	0 (0.00)	2 (12.50)	14 (87.50)	16 (1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8 (11.15)	259 (15.36)	462 (27.40)	352 (20.88)	425 (25.21)	1,686 (100.0)
사무종사자	51 (10.8)	39 (7.71)	185 (36.56)	107 (9.60)	124 (24.51)	506 (100.0)
서비스종사자	234 (12.91)	442 (24.38)	856 (47.21)	174 (9.60)	107 (5.90)	1,813 (100.0)
판매종사자	148 (19.27)	161 (20.96)	330 (42.97)	72 (9.38)	57 (7.42)	76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7 (89.87)	17 (3.66)	23 (4.96)	4 (0.86)	3 (0.65)	46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8 (5.65)	17 (15.78)	437 (51.47)	183 (21.55)	47 (5.54)	849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4 (2.96)	134 (14.06)	1,013 (68.12)	199 (13.38)	22 (1.48)	1,487 (100.0)
단순노무종사자	372 (12.93)	209 (29.28)	1,566 (53.58)	115 (3.93)	14 (0.48)	2,923 (100.0)
전체	1502 (14.28)	2117 (20.13)	4872 (46.34)	1208 (11.49)	813 (7.73)	10512 (1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2. 종사자 지위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종사자 지위를 살펴보면, <표 III-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상용근로자가 35.88%(3,772명), 임시근로자가 29.25%(3,075명)로 취업중인 결혼이민여성의 64% 이상이 상용 및 임시 근로자 지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사무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직종에 포함되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88.14%(409명)가 무급 가족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였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은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면서 임금은 적정하게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6.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종사자 지위

(단위: 명, (%))

구 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관리자	9 (56.25)	0 (0.00)	0 (0.00)	7 (43.75)	0 (0.00)	0 (0.00)	16 (1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18 (42.59)	567 (33.63)	90 (5.34)	67 (3.97)	226 (13.40)	18 (1.07)	1,686 (100.0)
사무종사자	327 (64.62)	60 (11.86)	10 (1.98)	35 (6.92)	43 (8.50)	31 (6.13)	506 (100.0)
서비스종사 자	389 (21.46)	643 (35.47)	380 (20.96)	118 (6.51)	171 (9.43)	112 (6.18)	1,813 (100.0)
판매종사자	155 (20.18)	211 (27.47)	47 (6.12)	56 (7.29)	207 (26.95)	92 (11.98)	76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 (2.16)	4 (0.86)	1 (0.22)	4 (0.86)	36 (7.76)	409 (88.14)	46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75 (44.17)	213 (25.09)	193 (22.73)	22 (2.59)	22 (2.59)	24 (2.83)	849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64 (64.83)	374 (25.15)	114 (7.67)	9 (0.61)	15 (1.01)	11 (0.74)	1487 (100.0)

구 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단순 노무종사자	825 (28.22)	1003 (34.31)	931 (31.85)	22 (0.75)	34 (1.16)	108 (3.69)	2923 (100.0)
전체	3772 (35.88)	3075 (29.25)	1766 (16.79)	340 (3.23)	756 (7.19)	805 (7.65)	10512 (1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3. 주당 근로시간

취업 결혼이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여성의 42.55% (4,473명)가 일주일에 41-7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를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서비스 종사자의 응답비율이 11.86%(215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25-4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농업관련 업무 시간이 다른 직종과 비교하였을 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7.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주당 근로시간

(단위: 명, (%))

구 분	24시간 이하	25- 40시간	41- 70시간	70시간 초과	전체
관리자	0 (0.00)	6 (37.50)	10 (62.50)	0 (0.00)	16 (1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56 (44.84)	677 (40.15)	247 (14.65)	6 (0.36)	1,686 (100.0)
사무종사자	56 (11.07)	279 (55.14)	168 (33.20)	3 (0.59)	506 (100.0)

구 분	24시간 이하	25- 40시간	41- 70시간	70시간 초과	전체
서비스종사자	263 (14.51)	485 (26.75)	850 (46.88)	215 (11.86)	1,813 (100.0)
판매종사자	125 (16.28)	254 (33.07)	352 (45.83)	37 (4.82)	76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4 (24.56)	183 (39.43)	156 (33.62)	11 (2.37)	46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7 (5.54)	257 (30.27)	524 (61.72)	21 (2.47)	849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6 (3.77)	494 (33.22)	867 (58.31)	70 (4.71)	1487 (100.0)
단순 노무종사자	375 (12.83)	1138 (38.93)	1299 (44.44)	111 (3.80)	2923 (100.0)
전체	1792 (17.04)	3773 (35.89)	4473 (42.55)	474 (4.51)	10512 (1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4. 교육수준

취업 결혼이민자의 직종별 교육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지닌 결혼이민자가 4,291명(40.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자가 1,895명(18.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의 결혼이민여성의 대다수가 학사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 농림어업, 단순노무 종사자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교육수준

(단위: 명, (%))

구 분	안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	전체
관리자	0 (0.00)	1 (6.25)	0 (0.00)	1 (6.25)	2 (12.50)	8 (50.00)	4 (25.00)	16 (1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 (0.06)	2 (0.12)	13 (0.77)	157 (9.31)	289 (17.14)	823 (48.81)	401 (23.78)	1,686 (100.0)
사무종사자	0 (0.00)	3 (0.59)	16 (3.16)	144 (28.46)	82 (16.21)	213 (42.09)	48 (9.49)	506 (100.0)
서비스종사자	18 (0.99)	115 (6.34)	387 (21.35)	894 (49.31)	188 (10.37)	195 (10.76)	16 (0.88)	1,813 (100.0)
판매종사자	5 (0.65)	14 (1.82)	74 (9.64)	373 (21.35)	119 (15.49)	175 (22.79)	8 (1.04)	76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1.51)	50 (10.78)	121 (26.07)	190 (40.95)	63 (13.58)	29 (6.25)	4 (0.86)	46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 (1.41)	63 (7.42)	21 (24.73)	422 (49.71)	67 (7.89)	72 (8.48)	3 (0.35)	849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 (1.01)	101 (6.79)	337 (22.66)	726 (48.82)	174 (11.70)	127 (8.54)	7 (0.47)	1487 (100.0)
단순 노무종사자	39 (1.33)	275 (9.41)	737 (25.21)	1384 (47.35)	264 (9.03)	218 (7.46)	6 (0.21)	2923 (100.0)
전체	97 (0.92)	624 (5.94)	1895 (18.03)	4291 (40.82)	1248 (11.87)	1860 (17.69)	497 (4.73)	10512 (1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5. 연령

취업 결혼이민여성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3,745명(3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076명(29.2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모든 직종에 걸쳐 30대-40대의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종사자에서 2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19.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연령

(단위: 명, (%))

구 분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전체
관리자	1 (6.25)	6 (37.50)	5 (31.25)	4 (25.00)	0 (0.00)	16 (1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8 (11.15)	810 (48.04)	496 (29.42)	151 (8.96)	41 (2.43)	1,686 (100.0)
사무종사자	65 (12.85)	255 (50.40)	142 (28.06)	42 (8.30)	2 (0.40)	506 (100.0)
서비스종사자	252 (13.90)	523 (28.85)	599 (33.04)	368 (20.30)	71 (3.92)	1,813 (100.0)
판매종사자	141 (18.36)	334 (43.49)	208 (27.08)	75 (9.77)	10 (1.30)	76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7 (23.06)	156 (33.62)	127 (27.37)	60 (12.93)	14 (3.02)	46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0 (16.49)	256 (30.15)	282 (33.22)	144 (16.96)	27 (3.18)	849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76 (25.29)	562 (37.79)	437 (29.39)	106 (7.13)	6 (0.40)	1,487 (100.0)
단순 노무종사자	607 (20.77)	843 (28.84)	780 (26.68)	547 (18.71)	146 (4.99)	2,923 (100.0)
전체	1,877 (17.85)	3,745 (35.62)	3,076 (29.26)	1,497 (14.24)	317 (3.02)	10,512 (1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6. 한국어 수준

현재 취업 중인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34.41%(3,618명)로 가장 높았으며, 관리자(56.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4.16%), 사무 종사자(45.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5.57%) 직종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약간 잘한다’는 응답이 31.25%로 가장 높았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30.93%, 29.32%로 가장 높았다.

표 3-20.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한국어 수준

(단위: 명, (%))

구 분	매우 잘한다	약간 잘한다	보통이다	별로 못한다	전혀 못한다	전체
관리자	9 (56.25)	2 (12.50)	2 (12.50)	2 (12.50)	1 (6.25)	16 (1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76 (34.16)	428 (25.39)	344 (20.40)	265 (15.81)	73 (4.33)	1,686 (100.0)
사무종사자	301 (59.49)	95 (18.77)	85 (16.80)	23 (4.55)	2 (0.40)	506 (100.0)
서비스종사자	824 (45.45)	428 (23.61)	400 (22.06)	151 (8.33)	10 (0.55)	1,813 (100.0)
판매종사자	323 (42.06)	188 (24.61)	179 (23.31)	74 (9.64)	4 (0.52)	768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26 (27.15)	145 (31.25)	122 (26.29)	69 (14.87)	2 (0.43)	464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02 (35.57)	221 (26.03)	226 (26.62)	93 (10.95)	7 (0.82)	849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72 (25.02)	425 (28.58)	460 (30.93)	211 (14.19)	19 (1.28)	1,487 (100.0)
단순 노무종사자	785 (26.86)	831 (28.43)	857 (29.32)	413 (14.13)	37 (1.27)	2,923 (100.0)
전체	3618 (34.41)	2763 (26.28)	2675 (25.44)	1301 (12.37)	155 (1.47)	10,512 (1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7. 사회참여 정도¹⁶⁾

취업 중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간 참여한다’는 응답이 42.13%(4,429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결혼이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참여도를 분석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취업의 여부가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러한 양상은 모든 직종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1.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사회참여 정도

(단위: 명, (%))

구 분	전혀참여 하지 않는다 (0/4개 참여)	별로참여 하지 않는다 (1/4개 참여)	보통이다 (2/4개 참여)	약간 참여한다 (3/4개 참여)	매우 참여한다. (4/4개 참여)	전체
관리자	0 (0.00)	2 (12.50)	2 (12.50)	10 (62.50)	2 (12.50)	16 (10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2 (5.46)	206 (12.22)	459 (27.22)	625 (37.07)	304 (18.03)	1,686 (100.00)
사무종사자	13 (2.57)	37 (7.31)	130 (25.69)	210 (47.50)	116 (22.92)	506 (100.00)
서비스종사자	41 (2.26)	96 (5.30)	333 (18.37)	774 (42.69)	569 (31.38)	1,813 (100.00)
판매종사자	27 (3.52)	49 (6.38)	153 (19.92)	347 (45.18)	192 (25.00)	768 (10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8 (6.03)	89 (19.18)	126 (27.15)	130 (28.01)	91 (19.61)	464 (10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1.06)	30 (3.53)	151 (17.79)	400 (47.11)	259 (30.51)	849 (100.00)

16) 사회참여의 정도는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여부, 지역주민 모임 참여여부, 종교 활동 참여여부, 민간단체 활동 참여여부에 응답한 것을 모두 합하여,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영역에, 1개라도 참여한 경우는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에, 2개 참여한 경우는 보통이다, 3개 참여한 경우는 약간 참여한다에, 4개 모두 참여한 경우는 매우 참여한다 영역으로 배분하여 측정하였다.

구 분	전혀참여 하지 않는다 (0/4개 참여)	별로참여 하지 않는다 (1/4개 참여)	보통이다 (2/4개 참여)	약간 참여한다 (3/4개 참여)	매우 참여한다. (4/4개 참여)	전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 (1.55)	62 (4.17)	278 (18.70)	662 (44.52)	462 (31.07)	1487 (100.00)
단순 노무종사자	65 (2.22)	185 (6.33)	526 (18.00)	1271 (43.48)	876 (29.97)	2923 (100.00)
전체	298 (2.83)	756 (7.19)	2158 (20.52)	4429 (42.13)	2871 (27.31)	10512 (1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8. 건강상태

취업 결혼이민여성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0.50%(4258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직종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는 응답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가 각각 32.03%, 3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나쁜 편이다’라는 응답이 10.23%로 다른 직종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2.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전반적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전체
관리자	4 (25.00)	11 (68.75)	1 (6.25)	0 (0.00)	0 (0.00)	16 (10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40 (32.03)	728 (43.18)	357 (21.17)	56 (3.32)	5 (0.30)	1,686 (100.00)

구 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전체
사무종사자	174 (34.39)	212 (41.90)	103 (20.36)	17 (3.36)	0 (0.00)	506 (100.00)
서비스종사자	374 (20.63)	708 (39.05)	541 (29.84)	180 (9.93)	10 (0.55)	1,813 (100.00)
판매종사자	203 (26.43)	321 (41.80)	194 (25.26)	46 (5.99)	4 (0.52)	768 (10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9 (25.64)	179 (38.57)	129 (27.80)	34 (7.32)	3 (0.64)	464 (10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6 (24.26)	328 (38.63)	260 (30.62)	50 (5.89)	5 (0.59)	849 (10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75 (25.22)	640 (43.04)	386 (25.96)	80 (5.38)	6 (0.40)	1487 (100.00)
단순 노무종사자	589 (20.15)	1131 (38.69)	888 (30.38)	299 (10.23)	16 (0.55)	2923 (100.00)
전체	2584 (24.58)	4258 (40.50)	2859 (27.19)	762 (7.24)	49 (0.46)	10512 (1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4.9. 생활 만족도

취업 중인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4.70%(3,648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생활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관리자(56.25%) 및 사무직(33.60%)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서비스(11.53%) 및 단순노무(11.08%)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서 높게 조사되었다.

표 3-23. 결혼이민여성의 직종별 전반적 생활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전체
관리자	9 (56.25)	6 (37.50)	1 (6.25)	0 (0.00)	0 (0.00)	16 (100.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79 (34.34)	625 (37.07)	377 (22.36)	94 (5.58)	11 (0.65)	1,686 (100.00)
사무종사자	170 (33.60)	165 (32.61)	147 (29.05)	24 (4.74)	0 (0.00)	506 (100.00)
서비스종사자	349 (19.25)	537 (29.62)	686 (37.84)	209 (11.53)	32 (1.77)	1,813 (100.00)
판매종사자	180 (23.44)	225 (29.30)	276 (35.94)	76 (9.60)	11 (1.43)	768 (10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2 (24.13)	156 (33.62)	152 (32.75)	40 (8.62)	4 (0.86)	464 (10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9 (22.26)	255 (30.04)	328 (38.63)	67 (7.89)	10 (1.18)	849 (10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29 (22.13)	461 (31.00)	554 (37.26)	129 (8.68)	14 (0.94)	1,487 (100.00)
단순 노무종사자	543 (18.58)	874 (29.90)	1,127 (38.56)	324 (11.08)	55 (1.88)	2,923 (100.00)
전체	2,460 (23.40)	3,304 (31.43)	3,648 (34.70)	963 (9.16)	137 (1.30)	10,512 (100.00)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5. 정부지원정책 수혜경험 및 요구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 교육 경험 여부와 각각의 교육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필요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5.1.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 경험 및 필요성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의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66.53%(11,383명)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47%(5,726명)가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 경험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받은 경험 없음	8,090 (69.86)	3,293 (59.56)	11,383 (66.53)
받은 경험 있음	3,490 (30.14)	2,236 (40.44)	5,726 (33.47)
소계	11,580 (100.00)	5,529 (100.00)	17,109 (100.00)

$X^2(1)=178.40$, $p\text{-value}=0.0000$

한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8.42%(4,86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조사대상의 21.55%(3,687명)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농

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느끼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도시 거주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 필요성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매우 필요하다	3,058 (26.41)	1,804 (32.63)	4,862 (28.42)
약간 필요하다	2,029 (17.52)	1,120 (20.26)	3,149 (18.41)
보통이다	1,690 (14.59)	832 (15.05)	2,522 (14.74)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95 (17.23)	894 (16.17)	2,889 (16.89)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08 (24.25)	879 (15.90)	3,687 (21.55)
소계	11,580 (100.00)	5,529 (100.00)	17,109 (100.00)

$X^2(4)=190.26$, p-value=0.0000

5.2. 사회활동 지원 교육 경험 및 필요성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지원 교육의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96.78%(16,558명)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2%(551명)가 사회활동 지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교육 경험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받은 경험 없음	11,256 (97.20)	5,302 (95.89)	16,558 (96.78)

범주	도시	농촌	계
받은 경험 있음	324 (2.80)	227 (4.11)	551 (3.22)
소계	11,580 (100.00)	5,529 (100.00)	17,109 (100.00)

$X^2(1)=20.53$, p-value=0.0000

한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지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는 응답이 23.89%(4,08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조사대상의 23.71%(4,056명)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도농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느끼는 사회활동 지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도시 거주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매우 필요하다	1,676 (14.47)	936 (16.93)	2,612 (15.27)
약간 필요하다	1,880 (16.23)	1,001 (18.10)	2,881 (16.84)
보통이다	2,706 (23.37)	1,381 (24.98)	4,087 (23.89)
별로 필요하지 않다	2,339 (20.20)	1,134 (20.51)	3,473 (20.30)
전혀 필요하지 않다	2,979 (25.73)	1,077 (19.48)	4,056 (23.71)
소계	11,580 (100.00)	5,529 (100.00)	17,109 (100.00)

$X^2(4)=88.37$, p-value=0.0000

5.3. 일자리 교육 경험 및 필요성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의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87.83%(15,026명)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17%(2,083명)가 일자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교육 경험

(단위: 명, (%))

범주	도시	농촌	계
받은 경험 없음	10,048 (86.77)	4,978 (90.03)	15,026 (87.83)
받은 경험 있음	1,532 (13.23)	551 (9.97)	2,083 (12.17)
소계	11,580 (100.00)	5,529 (100.00)	17,109 (100.00)

$X^2(1)=20.53$, p-value=0.0000

한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지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2.09%(5,49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자리 교육이 다른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조사대상의 19.42%(3,322명)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도농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느끼는 일자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도시 거주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9.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범주	도시	농촌	계
매우 필요하다	3,753 (32.41)	1,737 (31.42)	5,490 (32.09)
약간 필요하다	2,391 (20.65)	1,184 (21.41)	3,575 (20.90)
보통이다	1,683 (14.53)	895 (16.19)	2,578 (15.07)

범주	도시	농촌	계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21 (12.27)	723 (13.08)	2,144 (12.53)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32 (20.14)	990 (17.91)	3,322 (19.42)
소계	11,580 (100.00)	5,529 (100.00)	17,109 (100.00)

$X^2(1)=20.53$, p-value=0.0000

6.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1.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1.1 측정 및 분석방법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10,5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경제활동지위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다. 취업상태에 있는 종사자의 지위에 대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면 1, 나머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급여없이 가구원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지위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연구의 주요관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독립변수(거주지역, 연령, 거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사회참여, 전반적 건강상태, 생활만족도)와 통제변수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이나 일자리 소개와 같은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경험하였는

지 여부 추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정책적 변수와 학력간의 상호작용의 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 해당하는 모형 1에는 거주지역, 연령, 거주기간, 학력, 한국어 능력, 사회참여, 전반적 건강상태, 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독립 변수로 포함되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모형 2에는 정책적 변수를 추가하였고,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모형 3에는 정책적 변수와 학력간의 상호작용의 항을 추가하였다.

6.1.2. 분석결과

분석 결과 첫째, 취업교육 지원서비스 이용은 경제활동 지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경제활동에서 상용직의 지위를 갖게 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모형2 참조). 이는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연령은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1년 늘어나면 상용직 지위를 갖게 될 확률은 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기간은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거주기간이 늘어나면 상용직 지위를 갖게 될 확률은 약 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은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한 단위 늘어날수록 상용직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은 약 11%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어능력은 또한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능력이 한 단위 늘어날수록 상용직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은 약 9%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참여는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사회참여의 정도가 한 단위 늘어날수록 상용직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은 약 1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위 간의 부의 상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경제활동 지위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바빠지고, 이로 인해 모국인 친구모임이나 지역 주민 모임, 종교활동 모임,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지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전반적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정도가 한 단위 늘어날수록 상용직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은 약 8% 정도 늘어난다. 여덟째, 생활만족도는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생활 만족도가 한 단위 좋아지면 상용직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은 약 7% 정도 늘어난다.

표 3-30.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지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경제활동지위(상용직=1, 나머지=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SE	Ex(p)	B	SE	Ex(p)	B	SE	Ex(p)	B	SE	Ex(p)	
거주지역(읍면1, 동0)	-.00	.04	.99	.00	.04	1.00	.01	.04	1.01	.00	.04	1.00	
연령	-.01	.00	.98***	-.01	.00	.98***	-.01	.00	.98***	-.01	.00	.98***	
거주기간	.02	.00	1.02***	.02	.00	1.03***	.02	.00	1.02***	.02	.00	1.02***	
학력	.11	.02	1.11***	.11	.02	1.12***	.12	.03	1.13**	.12	.02	1.12**	
한국어능력	.08	.03	1.09**	.08	.03	1.09**	.08	.02	1.09***	.06	.03	1.09***	
사회참여	-.11	.02	.88***	-.12	.02	.88***	-.12	.02	.88***	-.14	.02	.86***	
전반적 건강상태	.08	.02	1.08***	.07	.02	1.09**	.08	.02	1.09**	.08	.02	1.08**	
생활만족도	.07	.02	1.07**	.07	.02	1.08**	.07	.02	1.09**	.07	.02	1.07**	
취업교육				.19	.06	1.21**				.47	.17	1.61**	
취업교육*학력							-.09	.05	.90+	-.08	.05	.91+	
사회적 관계										.05	.01	1.05***	
출신국가	중국(기준)												
	중국(한국계)	-.05	.06	.94	-.05	.06	.94	-.05	.06	.94	-.05	.06	.94
	일본	-.02	.09	.97	-.03	.09	.97	-.03	.09	.96	-.03	.09	.96
	대만, 홍콩	.01	.12	1.01	.03	.12	1.01	.02	.12	1.02	-.02	.12	.97
	베트남	.22	.07	1.25*	.22	.07	1.25*	.22	.07	1.25*	.24	.07	1.27
	필리핀	.02	.09	1.02	.00	.09	1.02	.01	.09	1.01	.03	.09	1.03
	그 외 동남아시아	.24	.09	1.28**	.24	.09	1.28**	.24	.09	1.27**	.24	.09	1.28**
	남부아시아	.55	.11	1.74***	.56	.11	1.74***	.55	.11	1.74***	.57	.11	1.7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3	.10	.74	-.14	.10	.74	-.14	.10	.86	-.13	.10	.87
	미주, 유럽, 태양주	.90	.10	2.46***	.92	.10	2.46***	.90	.10	2.46***	.88	.10	2.42***
기타	-.02	.21	.97	-.01	.21	.97	-.02	.21	.97	-.02	.21	.97	
상수	-1.65	.20		-1.70	.20		-1.74	.20		-1.68	.20		
N	10,512			10,512			10,512			10,512			
모형 χ^2	418.71***			428.72***			432.26***			450.24***			
LL	-6,652.25			-6,647.25			-6,652.25			-6,636.4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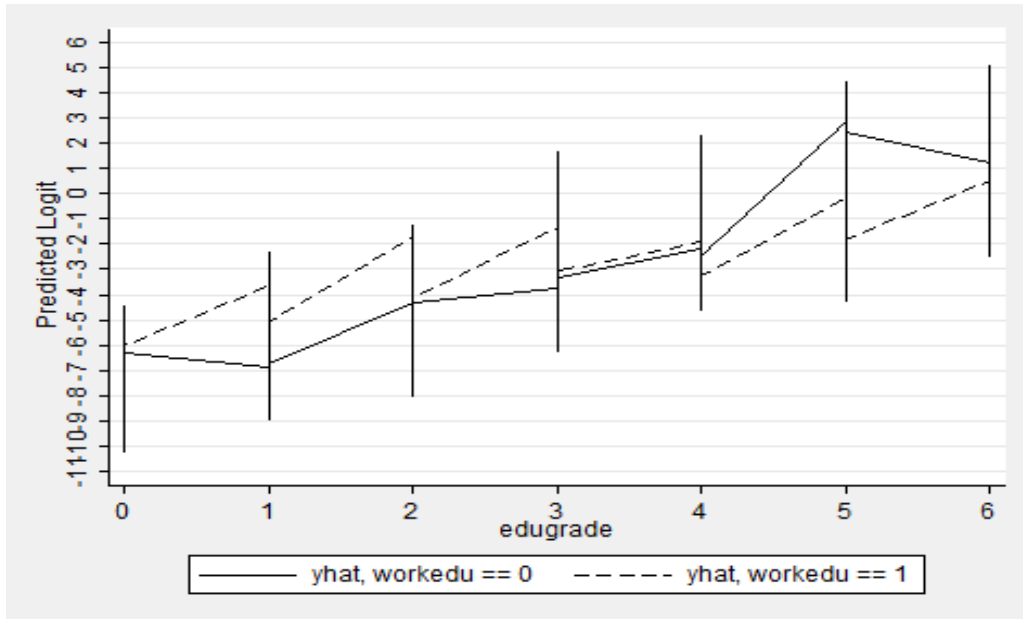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학력의 정도와 취업교육 서비스를 받은 경험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과 취업교육 서비스는 경제 활동 지위에 상호작용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모형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III-9]와 같다. 이 그림은 취업교육과 학력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력(X축)이 0에서 4까지(무학에서 초, 중, 고졸)는 취업교육을 받은 쪽(점선)이 받지 않는 쪽(실선) 보다 상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취업교육을 받은 쪽의 상용직 종사 가능성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취업교육을 받으면 상용직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점과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위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임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취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문대, 대학, 그리고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쪽(실선)이 받은 쪽(점선) 보다 상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집단은, 이미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고 취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위를 상용근로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도 필요함과 동시에, 이미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과 상용근로자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심화수준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학력의 정도와 취업교육서비스를 받은 경험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전체 모형, 그리고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연령은 전체 결혼여성이민자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여성이민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여성이민자의 경우에는 그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지역보다 그 수가 많으며, 종사할 직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풀이 넓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내국인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사회를 주도할 인력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

에, 결혼이민자의 연령에 따른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여성이민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상용직에는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분야로 취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참여 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점이 그 이유라 판단된다. 하지만 동시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 지원정책으로 사회적 관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보다는 사회적 활동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고 해석되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보다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통합은 경제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 노력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반면에 사회적 관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용직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보다 개인적 관계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용직 진입은 개인적 친분에 의해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결혼이민여성 집단적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효과를 보기 보다는 결혼이민여성 개인의 역량에 의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상용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생활 만족도는 전체 결혼이민여성이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지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섯째, 취업교육과 학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지역 결혼여성이민자와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도시지역 결혼여성이민자의 경우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발견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저학력의 젊은 여성인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교육을 통해 상용직으로 진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정책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1.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지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도농비교)

변수	경제활동지위(상용직=1, 나머지=0)									
	전체			도시			농촌			
	B	SE	Ex(p)	B	SE	Ex(p)	B	SE	Ex(p)	
거주지역(읍면1, 동0)	.00	.04	1.00							
연령	-.01	.00	.98***	-.01	.00	.98***	-.00	.00	.99	
거주기간	.02	.00	1.02***	.01	.00	1.01	.05	.01	1.05***	
학력	.12	.02	1.12**	.11	.02	1.12***	.13	.03	1.14***	
한국어능력	.06	.03	1.09***	.04	.03	1.04	.09	.05	1.09	
사회참여	-.14	.02	.86***	-.11	.02	.89***	-.17	.03	.83***	
전반적 건강상태	.08	.02	1.08**	.07	.03	1.07*	.11	.04	1.11*	
생활만족도	.07	.02	1.07**	.08	.02	1.09**	.02	.04	1.02	
취업교육	.47	.17	1.61**	.43	.21	1.53*	.72	.33	2.07*	
취업교육*학력	-.08	.05	.91+	-.06	.06	.94	-.19	.10	.82+	
사회적관계	.05	.01	1.05***	.07	.01	1.07***	.00	.02	1.00	
출신국가	중국(기준)									
	중국(한국계)	-.05	.06	.94	-.09	.08	.90	.11	.12	1.12
	일본	-.03	.09	.96	-.00	.12	.99	-.17	.16	.83
	대만, 홍콩	-.02	.12	.97	-.01	.13	.98	-.05	.33	.95
	베트남	.24	.07	1.27	.29	.09	1.33**	.25	.13	1.28
	필리핀	.03	.09	1.03	.02	.12	1.02	.04	.14	1.04
	그 외 동남아시아	.24	.09	1.28**	.24	.11	1.27*	.27	.14	1.31
	남부아시아	.57	.11	1.77***	.43	.13	1.54***	1.00	.22	2.73***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13	.10	.87	-.12	.12	.88	-.16	.18	.84
	미주, 유럽, 태양주	.88	.10	2.42***	.93	.11	2.55***	.20	.27	1.22
기타	-.02	.21	.97	-.22	.24	.80	.56	.43	1.76	
상수	-1.68	.20		-1.46	.23		-2.23	.35		
N	10,512			7,062			3,450			
모형 χ^2	450.24***			398.93***			102.53***			
LL	-6,636.49			-4,446.06			-2,160.9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2. 전문분야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2.1. 측정 및 분석방법

결혼이민여성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10,5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분야 진입여부는 더비 변수로 처리하였다. 전문분야 진입여부는 취업 직종에 있어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에 해당하면 1로 처리하고, 나머지 직종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전문분야 진입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독립변수(거주지역, 연령, 거주기간, 학력, 한국어 능력, 사회참여, 전반적 건강상태, 생활만족도)와 통제변수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정책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이나 일자리 소개와 같은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추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정책적 변수와 학력 간의 상호작용의 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 해당하는 모형 1에는 거주지역, 연령, 거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사회참여, 전반적 건강상태, 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2단계에 해당하는 모형 2에는 정책적 변수를 추가하였고,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모형 3에는 정책적 변수와 학력 간의 상호작용의 항을 추가하였다

6.2.2. 분석결과

분석 결과 첫째, 취업교육 지원서비스 이용은 경제활동 전문분야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에서 전문분야

에 진입할 가능성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거주지역은 경제활동에서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경제활동에 있어서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약 54%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은 경제활동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1년 늘어나면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은 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주기간은 경제활동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거주기간이 늘어나면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은 약 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력은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교육수준이 한 단위 늘어날수록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은 약 20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한국어 능력 또한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 능력이 한 단위 늘어날수록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은 약 9%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회참여는 경제활동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사회참여의 정도가 한 단위 늘어날수록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은 약 2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전반적 건강상태는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생활만족도는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생활 만족도가 한 단위 좋아지면 전문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은 약 21%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학력의 정도와 취업교육서비스를 받은 경험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모형2에서 취업교육의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발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표 3-32.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전문분야 진입여부(전문분야=1, 나머지=0)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Ex(p)	B	SE	Ex(p)	B	SE	Ex(p)	
거주지역(읍면1, 동0)	-.76	.08	.46***	-.75	.08	.46***	-.76	.08	.46***	
연령	-.04	.00	.95***	-.04	.00	.95***	-.04	.00	.96***	
거주기간	.05	.01	1.05***	.05	.01	1.05***	.04	.01	1.04***	
학력	1.12	.03	3.06***	1.12	.03	3.06***	1.11	.03	3.04***	
한국어능력	.47	.05	1.60***	.47	.05	1.60***	.42	.05	1.53***	
사회참여	-.32	.03	.72***	-.31	.03	.72***	-.29	.03	.74***	
전반적 건강상태	.05	.04	1.05	.05	.04	1.05	.05	.04	1.05	
생활만족도	.19	.03	1.21***	.20	.03	1.22***	.18	.03	1.19***	
취업교육				.07	.09	1.07	.07	.09	1.07	
사회적관계							.09	.01	1.09***	
출신국가	중국(기준)									
	중국(한국계)	-.19	.11	.82	-.19	.11	.82	-.18	.11	.83
	일본	.98	.12	2.67***	.98	.12	2.67***	.98	.12	2.66***
	대만, 홍콩	.27	.15	1.31	.28	.15	1.31	.20	.15	1.22
	베트남	-.67	.17	.50***	-.67	.17	.50***	-.64	.17	.52***
	필리핀	-.06	.13	.91	-.06	.13	.91	-.02	.13	.97
	그 외 동남아시아	-.52	.17	.59**	-.52	.17	.59**	-.51	.17	.59**
	남부아시아	-.35	.17	.69	-.35	.17	.69	-.30	.17	.73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06	.13	.93***	-.06	.13	.93***	-.06	.13	.97***
	미주, 유럽, 태양주	3.52	.19	.34**	3.53	.19	.34**	3.52	.19	.33**
기타	.79	.24	2.21***	.80	.24	2.21***	.79	.25	2.21***	
상수	-4.17	.44		-4.22	.44		-4.30	.45		
N	10,512			10,512			10,512			
모형 χ^2	4,960.47***			4,961.05***			4,983.22***			
LL	-2923.11			-2922.82			-2911.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전체 모형, 그리고,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과는 다르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지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강상태 요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요인이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이 함께 진행하지 못하는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전문분야 일자리 범위가 좁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일자리가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자리라기보다는 결혼이민여성이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로 결혼이민여성 인력 활용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 공통요인 이외에 거주기간, 생활 만족도, 사회적 관계 요인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취업교육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농촌의 경우는 결혼이민여성에게 기초부터 심화단계까지의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3.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도농비교)

변수	전문분야 진입여부(전문분야=1, 나머지=0)									
	전체			도시			농촌			
	B	SE	Ex(p)	B	SE	Ex(p)	B	SE	Ex(p)	
거주지역(읍면1, 동0)	-.76	.08	.46***							
연령	-.04	.00	.96***	-.03	.00	.96***	-.04	.01	.95***	
거주기간	.04	.01	1.04***	.04	.01	1.04**	.04	.02	1.04	
학력	1.11	.03	3.04***	1.13	.04	3.12***	1.06	.07	2.89***	
한국어능력	.42	.05	1.53***	.43	.06	1.54***	.44	.11	1.56***	
사회참여	-.29	.03	.74***	-.28	.04	.74***	-.32	.06	.72***	
전반적 건강상태	.05	.04	1.05	.00	.05	1.00	.16	.08	1.17	
생활만족도	.18	.03	1.19***	.20	.04	1.22***	.10	.07	1.11	
취업교육	.07	.09	1.07	-.05	.10	.94	.43	.17	1.54*	
사회적관계	.09	.01	1.09***	.09	.02	1.10***	.05	.03	1.05	
출신국가	중국(기준)									
	중국(한국계)	-.18	.11	.83	-.28	.13	.75	.28	.23	1.32
	일본	.98	.12	2.66***	1.23	.15	3.43***	.44	.23	1.55
	대만, 홍콩	.20	.15	1.22	.25	.16	1.28	-.06	.50	.93
	베트남	-.64	.17	.52***	-.62	.20	.53**	-.78	.31	.45*
	필리핀	-.02	.13	.97	.22	.15	1.24	-.57	.24	.56*
	그 외 동남아시아	-.51	.17	.59**	-.51	.20	.59*	-.56	.32	.56
	남부아시아	-.30	.17	.73	-.21	.19	.80	-.69	.43	.50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06	.13	.97***	.10	.15	1.11	-.46	.28	.62
	미주, 유럽, 태양주	3.52	.19	.33**	3.66	.22	.39***	2.99	.41	20.01** *
기타	.79	.25	2.21***	.68	.27	1.98*	1.42	.55	4.15*	
상수	-4.30	.45		-5.20	.51		-5.33	.86		
N	10,512			7,062			3,450			
모형 χ^2	4,983.22***			3,902.37***			4,983.22***			
LL	-2911.73			-2098.75			-2911.73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7. 소결

지금까지,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도농비교를 통해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하여 비교분석 결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모든 조사영역에 대해 중간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능력, 건강상태, 생활 만족도 등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여성보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 보통수준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정착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기초교육 및 지원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농촌에 거주하는 취업상태인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어 및 일자리 관련 교육을 경험한 비율도 매우 낮았으며, 사회적 관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정착단계에서 스스로의 의지 혹은 가족의 도움도 상당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 사회활동, 일자리 교육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가 뒷받침 해준다. 분석결과, 한국어 교육, 사회활동 교육, 일자리 교육이 모두 결혼이민여성의 지위 향상 및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는 삶의 질, 고용의 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장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사례를 통해 본 전문화 양상

1. FGI의 목적과 방법

1.1. 목적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전문인력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인력화에 대한 문헌조사, 통계분석에 덧붙여 FGI를 실시했다. FGI는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여성들이 전문인력 진입에 대한 애로, 문제점,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FGI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과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 장애요인과 성공요인, 그리고 정책적 수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부처들의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관련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FGI를 실시했다.

1.2.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개념정리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집단으로 구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FGI 실시 대상 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지역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경력개발을 하고 있는 김제, 사회적 지지 활동 참여로 경력개발을 모색하는 남양주와 홍천, 농업에 종사하는 홍성 지역의 결혼이민여성과 비교적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선정했다. 인터뷰 대상 선정은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한국생활을 상당기간(5년 이상) 한 아시아 개발도상국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에게 중점을 두었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 문항을 사용하되,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과 관심 분야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과 결혼이민여성의 개괄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4-1. FGI 개요

김제	
일시	2016년 10월18일(화) 16:00-18:00
장소	카페 이음
참석자	정다인(응원 비박꾸엔) 외 5인.
남양주	
일시	2016년 10월19일(수) 10:00-12:00
장소	남양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의실
참석자	투무르바타르 나랑체첵 외 6인
홍성	
일시	2016년 9월19일(수) 16:30-18:30
장소	홍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의실
참석자	후인 김투언 외 6인
홍천	
일시	2016년 10월 21일(금) 16:00-18:00
장소	홍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의실
참석자	로드자인 키티랏 외 4인

2. FGI 분석 결과

표 4-2. FGI 범주와 질문 내용

	범주	질문 내용
가.	취업 및 직업 이동 경로	일자리 진입과 일자리 이동 경로에 대한 질문 - 취업 경로 - 현재 일자리까지 직업 이동 경험 - 취업경험이 없으면 그 이유에 대한 견해
나.	지역사회 참여 경험 및 사회적 관계 형성 관련 서비스 경험	한국생활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지원에 대한 질문 - 지역사회 참여 방식 - 지역사회 참여 교육이나 지원에 대한 견해
다.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관련 교육이나 지원 경험	한국생활에서 취업관련 교육이나 지원에 대한 질문 -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 - 교육이나 지원을 받았다면, 효과에 대한 견해
라.	일반 한국인 대상 취업관련 교육이나 지원 경험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이외에 일반 한국인들과 같은 취업관련 교육이나 지원에 대한 질문 - 교육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 - 교육이나 지원을 받았다면, 효과에 대한 견해
마.	전문인력화를 위한 현재의 과제와 정책 요구	전문인력화를 위한 현재의 과제와 정책 요구에 대한 질문 - 결혼이민여성이라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 - 전문인력화를 위한 노력과 준비에 대한 질문 - 전문인력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견해

2.1. 취업 및 직업이동 경로

인터뷰를 통해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직업이동 경로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전문직에 진입하기까지 평균적으로 4-5회 경력이동을 경험, 둘째, 취업했으나 퇴직하고 새로운 전문일 자리를 찾는 경우, 셋째, 일자리에 진입한 이후 3D 업종이나 농업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결혼이민

여성, 넷째, 첫 직장으로 전문직에 진입하는 결혼이민여성, 마지막으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결혼이민여성이다.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로의 이동을 준비하거나 이미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여성들의 공통점은 한국어 자격과 관련 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인터뷰는 여러 번의 직업 이동을 통해 현재 전문화된 일자리에 진입한 사례이다.

몽골은 부부가 맛별이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 제가 일하고 싶다고 하니깐 너는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일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젊었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한국에 사시는 몽골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모텔을 찾더라고. 저는 모텔 일이 좋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모텔에서 나오면 모텔 청소가 너무 좋은 일이구나. 사람들 많이 구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모텔에서 누가 일을 찾는다고 해서 갔어요. 보니까 소개업체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소개비 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3만 원밖에 없어서 3만 원 드리고 우선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한 달 일했는데 진짜 매일 매일 울었어요. 저는 원래 웬만하면 일 잘하는데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든 것보다 락스 물에다가 매일 청소하는데 뒤에서 확인하고 따라 오니까, 저는 원래 모르니까 자기 집처럼 청소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쉴 틈이 없이 돌아가는데도 방을 다 청소 못할 정도로, 같이 일하시는 조선족 분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깔끔하신 분이어서 또 확인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구나. 신랑이 이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었구나, 힘들다고 말했구나,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제가 딱 한 달 하고 다른 데서도 일자리 생겨서 다른 데 갔었어요.

영어 번역하고 이런 데여서 사실 조금 영어가 짧았는데 그것을 일해본 경험 없으니까 이 일에서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가서 3개월 있다가 업체에서 외부 사람이랑 거래하는 내용을 번역하고 이런 것을 딱 3개월 하고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미성업체에서도 한 달 동안 시다를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먼지가 많고,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계속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계속 병원 가고, 사람들한테 피해줄까봐 계속 병원 가다 보니까 건강에 되게 안 좋더라고. 다음에 약으로도 안 나아지더라고. 그런데 한 달 하고 저한테 월급 하는 만큼 다 주시겠다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80만

원 준 거예요. 저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80만 원 받고 그렇게 어려운 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힘든 일이라도 해도 돈 좀 더 버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만 두겠다 했는데 미싱을 가르쳐주겠다고 1년 동안 계속 같이 일해달라. 미싱 가르쳐주면 월급을 쑥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거기서 일했고, 월급은 90만 원으로 1년 거기서 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일자리 찾는 방법도 모르고 있었는데 구리에서 아는 사람이 저보고 그런 일 했었으니까 영어 번역 하나가 나와서 잠깐 일 없으니까, 어떤 몽골사람을 알게 됐는데 같이 일자리 찾으러 가자.

벼룩시장을 들고 저랑 만났어요. 저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벼룩시장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기 저기로. 저 취직하고 싶다고 하니깐 웬만한 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어설픈 거예요, 2년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못했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가서 모텔 문 다시 열어서 일자리 있다고 청소하겠냐고해서 갔었어요. 그분도 젊었고 우리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니고 있지? 사람들이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거기서 일했었는데 거기서 5개월 했는데 모텔은 너무 힘들더라고, 역시나. 너무 일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데 10kg 빠졌어요, 5개월 일했는데. 젊고 일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보물이다 이러면서 저를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저는 L2 비자이고 모텔에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가니까, 그래서 5개월 하고 진짜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모텔에서 저를 불러서 카운터 봐달라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카운터를 8개월 했어요, 제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게 됐어요. 앉아있는 일이 사람한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됐어요. 모텔 주인은 계속 친절하게 하시기를 원하니깐, 그리고 외국 사람들 오면 얼마짜리 있냐, 방 물어보잖아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분들 한 번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해요, “얼마 얼마짜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목소리가 잠겼었어요. 그때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목소리가 잠기고, 어느 날에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소리가 로봇 같다고, 저녁이 되니까 목소리가 쉬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거기 8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공부하러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여기 들어와서 이것 진짜 기회다 이러면서 진짜 놓치지 않으려고 6년 달려왔어요(남양주 결혼이민여성 1).

한국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어 간단한 거 다 알았어요. 와서 그냥 바로 임신하고 출산해 애기만 2~3년 정도 키웠어요. 애기 둘 지나고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지금 빈 자리 나왔다고 보조교사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어린이집에서 일 시작했어요. 2년 4개월 정도 일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녔다가 다문화에서 운전면허 따라고 해서 다문화에서 일주일에 두 번 가서 배웠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학교에서 지금 베트남 유도한다고 저한테 소개해줘서, 그 학교에서 통역 일하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3일 일했어요. 그래서 여기 베이커리 과정 교육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제가 먼저 이력서 내라고 해서 먼저 했어요. 빵 배우고 싶다고, 어린이집 같이 다니면서 빵도 같이 배우고, 여기 처음에 베이커리는 알바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일을 그만두고 베이커리만 다니다보니 직급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2년 일하다가 그 다음에 한국 분이 나이 젊어요. 거기 책임자거든. 그분이 그만두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한 베트남 언니 임신해 애기 낳았으니까 잠깐 집에 있고 제가 책임자로 올라갔어요(김제 결혼이민여성 3).

다음은 한국어가 유창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현재의 전문화된 일자리까지 진입하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인터뷰이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제시시켜 주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결혼이민여성들은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터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취약한 결혼이민여성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오기 전에는 중국에서 17년간 간호사 하고 한 직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한국이라는 봄이 막 이는 바람에 조선족이다 보니까 큰 꿈을 안고 왔는데 현실은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이런 현실이었고, 당시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수간호사까지 올라서 임원 비슷하게 역할을 했지만 간호조무사로도 안 써주고, 간호사는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다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식당이에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진짜 엄청나게 일을 해봤고, 지치고 더 이상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생각에 적성을 살리자. 내가 병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설거지 하고 쟁반 들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계속 자꾸 물어

보니까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게 간병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으로 3년은 근무를 했어요. 3년 근무하면서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너무 고마운 게 식당에서 일하다가 간병인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의 시스템을 다 잘 아니까, 내가 20년 가까이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입원부터 퇴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4만 원 받을 때 5만 원, 6만 원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환경미화원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를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계형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이 안 보였어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간병인 하니까 좋구나. 병원이 깨끗하고 명지대학 병원에 가고 일산병원에 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바보처럼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만 생각하는 생계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는 그래도 전문대 나와서 간호일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을 내서 그때 당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할 여건이 안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당은 힘들고, 그래서 주어진 게 간병인이다 그랬더니 나보고 둘러보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간병인협회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니폼이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유니폼 자체를 입은 것도 뿌듯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지금 간병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60대 이상인데 왜 젊은 나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허드렛일을 하나 그러면서 젊었을 때 꿈을 가지라고 인생의 멘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왜 댁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면 명지대학병원에서 미화원으로 청소하는 아주머니였는데 그 병원에 24년째 청소를 한대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60세였어요. 그러면 딱 내 나이에 어려운 환경에서 이 병원에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니까 애를 키워야 되고 거기에 과묵하다 보니까 자기는 오늘날까지 청소부로 계속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20년 전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했을까?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머리를 한방 딱 맞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바보가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인정받고 진짜 전문인력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진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부로 때려치웠어요, 안 하겠다고. 그 다음에 찾아봤는데 그때는 다문화센터가 없었어요.

일하자면 어디로 가면 되냐고 그랬더니 여성발전센터라는게 있다고 거기를 가보라고 해서 여성발전센터에 가서 제가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간호사를 20년 가까이 근무했고 한국에 와서는 식당일이나 그냥 이런 것밖에 못했는데 지금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르트 배달을 하자고 찾아온 게 아니라 나는 내 적성을 살리고 내가 전문성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고 일 같은 일, 질적인 것도 좀 생각하고 싶다 그랬더니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면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왔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조선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이 평가를 하더라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가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20년 경력이 있어도 병원에서는 간병인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원강사, 중국어 강사를 하려고 해도 또 강사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쭉 해봤는데 없었어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일단 컴퓨터부터 배워라.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컴맹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여기 저기 찾아다니고, 그때만 해도 컴퓨터 가르치는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못하겠다. 그리고 저 혼자 중국어로 다시, 중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나고 전공이 아니니까 가르치는 비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혼자서 중국어책을 서점에 가서 사다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때 당시 알려주는 게 학원강사만 가는 게 아니고 개인과외를 해도 얼마든지 된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해서 혼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연락이 오면 받으면 된다. 보니까 전봇대에 중국어강사도 붙어있고 과외, 영어강사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 그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예요. 지하철역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단지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전문대 나왔고 중국어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전화를 하잖아요. 중국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중국어 자격증이 몇 급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어 자격증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중국어 자격증이라는 게 뭐냐고. 그때는 인터넷을 알면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도 한국 사람한테 물으면 한국 사람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HSK라는 게 중국어자격증이라는 것을 그때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말 아무리 잘하고 중국어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격증이 없으면 엄마들은 벌써 그것을 물어보는 구나. 그래서 바로 그때 강남에 가서 신청을 해서 HSK 자격증을 그때 당시에 8급으로 땀어요.

지금은 고치고 나니까 지금 제일 높은 게 6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능력자격증을 처음 시험 도전해서 땀는데 너무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래 나는 중국어를 가르칠 자격이 돼. 그 다음부터는 가서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는데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나는 당당하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명, 두 명 해서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직장인 심지어 변호사까지 섭외가 들어와서 중국어를 쭉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어를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6년 가까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문화센터에 와서 근무하게 된 계기는 2009년인가 다문화센터가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생겼어요.

그리고 2010년에 처음으로 강서구에서 다문화이해강사라는 것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거기서 컴퓨터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사실 우리는 개인플레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를 한글부터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40명, 50명 등록을 하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 였고, 나중에 수업이 끝나면 자격증시험을 보게 해요.

그러면 그중에 도전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남아요. 제가 제일 고령이었지만 그래도 한글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따고, 그런데 웃기는 게 ITQ 자격증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장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찬 거야. 저는 너무 놀란 게 애들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이래요. 세상에 내가 컴퓨터자격증을 따러 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할머니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그때 딱 느낀 게 한국에서 10년 이상 사니까 나름대로 저도 국적을 취득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이 되기는 멀었구나. 이렇게 지금 와서 한글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벌써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을 다 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다시 느끼고, 그 다음에 돈이 주는 행복감보다 소속감도 없고 혼자서 계속 일하는 자체가 따분할 때도 많고, 그래서 다문화이해강사를 도전하면서 컴퓨터자격증을 엑셀까지 다 따게 됐고, 그때는 취업에 대한 욕망보다는 나한테 뭘 채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다문화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여성들을 모아

놓고 컴퓨터교육부터 취업교육 그러면서 이미지 메이킹, 한국직장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가르쳐주니까 단골손님이 된 거죠. 센터에도 하루 365일 계속 가고, 새일센터, 그때 여성발전센터가 새일센터라고 분리돼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담당자분들이 1대 1로 붙어서 이민자들을 취업시켜야 되겠다고 면접연습부터 시작해서 복장 입는 것, 헤어스타일 이런 것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전에는 직장일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중국 직장하고 한국 직장은 엄연히 다르고, 그래서 그때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서부센터에서 선생님 중국어 잘하니까 통·번역사 자리가 영등포에서 하나 났는데 도전해보세요, 이라고 서부센터 센터장님이 추천서까지 써서 영등포센터로 접수를 했는데 서류심사 합격이 돼서 그 다음에 면접 보러 갔어요. 1명을 뽑는데 16명이 지원하고 거기서 면접을 봤는데 항상 저는 고령자여서 계속 밀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면접에 떨어지고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전에 또 제가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보건복지부 연수원에서 하는 것을 가서 120시간인가 이수를 했어요. 그때도 서류 면접에서 하도 나이를 자꾸 물어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없대요.

나이 제한 없고,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병원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고 서류심사에 합격해서 그때는 서울여대에서 교육을 할 때인데 또 거기도 제가 최고령이에요. 다 젊은 애들이고, 저는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도 내가 코디네이터를 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반에서 반장을 시켜서 컴퓨터를 좀 하니까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지기를 하면서 코디네이터 과정을 제가 엄청 잘 이끌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담당 선생님이 코디네이터 이렇게 일자리만 나면 저한테 1번으로 이력서를 넣으라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넣으면 떨어지고 넣으면 떨어지고, 나이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5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안 된다. 40세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프리랜서는 제가 강남성형병원의 코디네이터라도 7개월 한 적이 있거든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막 몰려올 때는 바쁘면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전화번호 연락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으로 성형 온 사람들 병원에 안내해 주고 간단한 수술을 한 사람들은 관광을 또 인도해서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가이드 비슷한 것도 하고 면세점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해서 수입은 지금 현재 통·번역사보다는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굳이 110만 원의 월급으로 제가 여기 취직하게 된 이유는 제가 걸어온 이 어려운 굶이굽이를 지금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해요. 지금도 중국에서 온지 12년이 된 사람도 “그런데 왜 다문화센터를 몰랐어?” 그러면 “저는 일하러 다니느라고 다문화

센터 있는 것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것보다는 내가 먼저 인생 살아온 선배로서 한국에 와서 결혼이민자들이 너무 나를 포함해서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가 지금 4년차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유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본 분이 라오스에서 오신 분인데 그 나라에서 12년 동안 초등학교 강사를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남성이랑 결혼해서 와서 애 생기고 이렇게 애를 셋이나 출산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인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분을 만났는데 왜 도전을 안 하나 그랬더니 내가 한국말도 잘못하고 내가 라오스에서 아무리 초등학교 강사를 했으면 뭐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제 아들이 31살이고 그분이 내 아들 같은 나이. 그 젊은 나이에 벌써 희망이 없고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두세 시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한국에 다문화이해강사도 있고 라오스 언어도 네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경험담도 들려주고 다문화센터 이용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농촌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러니까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경기지역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제일 많이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남양주 결혼이민여성 5).

다음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일자리로 이동을 준비 중인 사례이다.

금방 들어와서 감자탕집 식당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중국사람이다 보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7일 일했어요. 일주일 일했는데 사람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비오는 날인데 식당에 등록증을 검사한대요. 검사를 하면 바로 갖고 오래요. 내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바로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법으로 온 것도 아니면 내가 조금 있다가 비 좀 그치고 오후에 갔다 오면 안 되냐 하니까 지금 당장 갔다 오래요. 지금 갔다 오라고 해서 그러면 가겠다고 우산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우산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일을 해야 하나, 식당이 이 집밖에 없나, 이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 진짜 기분 상해서 일을 못하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알바 구할 때까지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갖고 와서 일주일 일했던 것이 있으니까 네가 잘못이고 내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바 구할 때까지 네가 일해. 나는 그것 못하겠다고. 처음에 왔을 때 나이가 어렸어요. 그랬으니까 울고 있었어요. 너무 당당하게 지배인이 얘기하니까 울면서 나 그러면 안 하겠다고. 돈 안 줘도 할 수 없고 안 한다고 했더니 나도 줄 수가 없으니까, 5개월 만에 받았어요. 내가 진짜 딱 5개월 만에 줄 테니까 그 전에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계좌번호만 적어놓으래요. 그래서 적어놓고 집으로 왔어요. 진짜 딱 5개월 만에 줬는데 하루 것을 안 줬더라고요. 내가 8일 일했는데 왜 이렇게 주냐니까 7일 일한 것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와서 다른 식당에서 일할 때는 순조롭게 몇 달씩 잘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가 회사 다니는 게 나올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인턴폰 하는 회사 다녔다가 1년씩 다니고 핸드폰 만드는 제조업하고, 핸드폰 만들려면 안에 부품 선별하는 데도 다녔고요. 지금은 집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취업하려고 국가에서 고용노동센터인가요, 거기에서 도움을 주셔서 자격증 취득해서 하는 것, 작년에 이미용 자격증 따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지금은 네일아트 자격증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미용이 비슷한 연관된 직업이라서 내가 이것 저것 해서 미용 쪽은 다 할 수 있고, 메이크업 하는 것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게 차려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남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집안에 도움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홍천 결혼이민여성 2).

다음 사례는 결혼 이후 농촌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장에 다니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이다. 이들은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소규모의 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노동은 생계유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집단에 직업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D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농사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병든 시부모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 사례이다.

제가 애기 낳아서 2년 후 휴대폰 공장에 다녔어요. 집이 너무 멀어서 휴대폰 만드는 것 시간 안 맞아요. 8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시간 안 돼요. 거기 가서 청소해요. 만약에 제가 청소해서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좀 늦게 와도 너무 멀어서 택시를 타면 돈 많이 들어가고, 거기 와서 청소하는 중 회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나이 너무 어려서 청소하면 안 되고 휴대폰 만드는 것 해야 돼. 제가 10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휴대폰 조립해서 하루에 차비 빼고 2만 6,000원. 한 번 갈 때 3,150원, 왕복해서 6,300원. 오랫동안 제가 휴대폰 만드는 시간 얼마 안 하니까 다시 와서 청소 좀 해 주세요. 회장님 와서 제가 저기 안에 들어가 안 보이게 해야 돼. 다음에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기 사장님 또 불러서 청소해서, 만약에 휴대폰 하는 것 바쁘면 제가 거기 가서 해요. 안 바쁘면 청소회사 왔다 갔다 해요. 오랫동안, 나중에 그 공장 없어졌어요. 춘천으로 이사했어요. 황태공장 거기에도 7~8개월 일했는데 차비 너무 비싸. 월급 너무 적은 거여서 제가 생활비 안 돼요. 제가 다른 공장에 가요. 황성의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거 돈 좀 많이 벌어요.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한 번만 집에 들어와요.

거기 친구들 같이 방 하나씩 해서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주말에만 남편, 아들 데리고 나와서 얼굴 좀 보고 들어가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남편 아프대. 수술을 해서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몸이 안 좋아서 가끔씩 아파요. 어머니 허리수술해서 제가 회사 그만해서 여기 들어와요. 지금 집에 농사하고 밥해요. 가끔씩 제가 여기 남산초등학교에 아르바이트 급식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해서 세 번, 집에 농사하고 (홍천 결혼이민여성 2)

다음은 농업에서 이탈해 3D 업종에서 근무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가 바라볼 때 결혼이민여성들이 오는 사람 대부분이 시골에 부농으로 시집 온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정말 빠듯하게 정말 일만 죽어라 하는 그런 곳으로 시집을 와서 못 견디고 다시 가는 게 비밀비재합니다. 정말 농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관리나 경영 전반의 부분 좋게 생각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육성해 주고, 반면에 영세농가에 속하는 이분들은 여기 와서 농업하다가 내 땅도 없이 남의 땅을 부쳐서 먹고 임차농이라 그렇게 하다가 땅이 개발이 되고 아니면 명의를 이전해서 그 땅을 부쳐서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연히 농

촌에서 유입된 게 다시 나와서 새로운 생계형이 되든지 이게 맞닥뜨리는 과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과연 우리가 아니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좋죠. 농업에 관련된 일자리, 전문적인 일자리, 그런데 이분들이 그 환경에서 독립은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 이게 지도·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뭔가 여기서 자기가 원해서 이탈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이나 가족 간에 아니면 거의 외부환경이죠. 농사, 농업이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탈되는 사람들도 뭔가를 해줘야 되고, 이분들을 지도·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농업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분들은 전문직이 되고 언어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용인 구성농협 팀장)

다음은 첫 직장으로 전문인력 일자리에 진입한 결혼이민여성 사례이다. 이러한 유형의 결혼이민여성의 특징은 사회적 관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자격증, 특히 한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임신해서 일한 경험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어요. 아이는 3명. 딸, 딸, 아들. 애들만 키우고 일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통·번역사로 일해요. 애기 보면서 집하고 센터 가까워요. 맨날 센터 나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방문교육 같은 것도 다 신청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요. 처음에는 센터 나와서 공부하다가 다음에 한국어수업 하고 방문 그거 신청하고 자녀생활서비스 그것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애기랑 놀면서 그냥 공부하고, 처음에는 한국어 자격증 3급 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 와서 일하다가 지난달인가 7월 달에 4급 땀어요. 홍천에는 6급은 없고 4급도 몇 분 안되요. 다 별로 자격증을 따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람만 따서 주변에 두세 명 정도 있어요(홍천 결혼이민여성 5).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비교적 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남성과 가정을 꾸린 경우는 많지 않다. 이들은 농업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농업 기술, 재무 및 노무 지식, 사회적 관계 능력을 가진 농업경영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장차 이 유형에 속하는 이들의 농업 종사 및 전문인력화 여부에 따라 농촌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담당자들도 이들 집단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감자가 너무 커서 어떤 공장과 계약해서 갖다 팔았는데, 속았어요. 3년 전에는 3,500만 원이나 못 받았어요. 그 회사는 망했어요. 물건 팔 회사 되게 찾기 어려워. 지금은 단무지 팔아서, 어떤 회사는 납품회사에 예약해서 넘겨. 무조건 예쁜 것으로 보내요. 나쁜 것 못 보내요.

속상해요. 개인회사는 망해서 돈 못 받아. 지금까지 몇 천만 원 잃어버렸어. 법원 가서 조정해도 안 돼. 3년 전 것을 지금까지 돈 못 받아요. 작년에는 단무지 갖다 팔아도 2,000만 원 군에서 단무지 갖다 줘서 딱 2년만에 돈 돌려줬어요. 그 2년은 돈 되게 부족해서 돈 못 받았어요. 은행에서는 대출해준다고 계속 찾아와요. 인부 값이랑 씨앗, 땅도 새 토지면서 단무지 공장은 2,000만 원 돈 안 보내줘. 어떻게 좋은 자리 보는 방법 어려워요. 그런 교육에 참석 안 하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홍성에서 크게 농사짓는 베트남 사람 많아요. 농사 잘해서 큰집하고 있는 사람 동네에서 일 도와주고 농사를 내 집에 인해서 다른 집에 인해서 외국사람 자주 와서 도와주고요, 내가 앞으로 해줘요. 방앗간이랑 감자공장, 감자가루, 단무지 공장이랑 할 거예요.(홍성 결혼이민여성 6).

그분들이 재산 상속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관리가 안 되면, 지금 소농들 관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잖아요. 아직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육성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내에서 방향이 어디로 진행됐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쪽에 조금 기획안을 해서 그 부분을 강화할 생각이고, 그것을 지금 계속 저번에도 센터에서 고민했어요. 현재도 이들 집단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편적이고 다 찾아 다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그 클래스를 다 들을 수 있게 해야지 이거 하나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듣고, 그냥 교육 듣기 어려운 대상이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듣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단계가 있고 그 카테고리가 쪽 있어서 그 카테고리를 따라가면 여기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증이라든지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것은 안 돼 있죠(구성 농협 팀장).

마지막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만, 주로 육아에 전념하면서 농업은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결혼이민여성 집단이 있다. 인터뷰 결과, 이들 집단의 농업관련 교육에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농업에 보조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 집단을 전문인력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농업교육분야, 1대 1 맞춤형 교육, 기타 정착지원과정을 포함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전문인력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저는 한국 오자마자 임신 바로 했는데 첫째 바로 임신해서 시어머니 같이 살았고, 첫째가 4살 때 부터 한국어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 니은 늦게 시작했어요. 다문화센터 2008년에 열었는데 와서 저, 아이 첫째 딸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공부하면 별로 시간 없지만 버스가 하루 아침 두 번, 오후 한 번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랑 왔다 갔다 하고, 저는 한국어만 배우고 기억, 니은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생기니까 신랑은 심장병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일자리 오래 안 했잖아요. 그만두다가, 그래서 저는 애 둘이 있어서 생활비도 부족해서 저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9개월, 다문화센터 팀장님이 그때 통·번역사 모집했어요. 저는 그때는 통·번역사 자신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가 아직 부족하고 경험은 없고 애기도 어렸어요. 그런데 저보고 한번 시험 나가보라고 했어요. 저는 신랑이 일 없으니까 한 번 해봤고, 그래서 한국에 외국어대학교 가서 시험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저는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애가 9개월이니까 일할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했어요. 아직 애기 어리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우리 신랑이 돈도 필요해서 만날 카드대출 받은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은, 저는 그냥 돈벌려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얘기, 신경 쓰고 저는 가족만 생각하고 그전부터 9개월 어린이집 보내고,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한국어 초급 배웠잖아요. 아직 중급 안 배워서 어떻게 합격인지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통·번역사 첫 직장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홍천 결혼이민여성 4).

우리 남편은 지금 회사 직원이에요. 그래도 주말마다 농촌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시간 있으면 같이 하고, 시간 없으면 일 있으면 다른 일을 하고 같이 안 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남편이 일 없을 때 쉬는 날에 해요. (홍성 결혼이민여성 1)

한국에 온지 지금 5년이 됐고요, 한국에 오자마자 애기도 바로 가지고 애기도 낳은 후에 바로 한국어 교실도 다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어 공부하고 있고요, 애기도 키우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활동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요, 현재도 다문화센터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싱 좋아서 그런 것도 현재는 배우고 있어요. 애기 옷 만들고 싶어서 내가 직접 그런 것 저도 배우고 있어요. 구리여성회관에서 배우고 있어요(남양주 결혼이민여성 3).

한국에 온지 6년 좀 넘었어요. 아이가 세 명이고 2명, 5살, 6살이에요. 아직 애기가 어려서 저는 농사는 같이 못하지만 대신에 제가 점심 같은 것은 해드려요(홍성 결혼이민여성 3). 저희 4명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일 다니다가 임신해서 음식도 안 맞고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입덧 심하고 이렇게 그만됐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농사 도와주고 지금 애들이랑.(홍성 결혼이민여성 4)

2.2. 사회적 관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력 여부와 관계 없이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터뷰에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인적 교류 정도가 낮고, 자녀 취학 이후 학부모 모임에서도 소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 사이의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를 활용한 정보 공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녀 양육 및 진로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획득하지 못하여 진로 지도에 애로사항이 있고,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춘기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갈등을 예방 또는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포터즈 참석자들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다문화가정에 관련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지역사회의 필요한 자원을 함께 조직해 지원해주는 긍정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포터즈 활동 중에는, 원래 저는 한국에 온지도 5년이 되고 오래는 아니지만 다른 분보다는 저도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한국어나 어디가는지 길도 알려주고, 아니면 어려운 생활의 언어소통, 남편하고 부부, 저도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 활동은 실제 경제활동만 안한다 뿐이지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사회에 능력을 환원하는 거다. 저희가 모르는 사각지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센터에 안 오면 몰라요. 그리고 다문화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다가 이주여성이 못 살고 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출하는 경우에 남편과 아이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사각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주세요,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그래서 거의 한 달이나 3개월로 실적을 나눠보면 100건 이상, 90건 이상, 올해 71건 정도 개발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신규 발굴도 20~30건이 됩니다.

통·번역사처럼 전문화해서 상주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사실 다 돈 문제가 개입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생활지원대상자 아니면 저희 센터 사례관리사가 발굴을 해 주면 공적 부조로 그 지역의 어떤 자원, 비공식적인 자원, 공적자원들이 연계가 가능하고, 상담이라든가 센터에서 주는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도 연계가 가능하죠. 그리고 애기가 아프면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지, 가서 진료카드도 써야 되고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이런 것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글자를 이렇게 또박또박 쓴다는 것은 온지 몇 년이 돼야 하는 거니까 따라 가서 그런 것도 대신 해 주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야 되는지, 우체국은 어디에 있는지, 은행은 어디에 있는지, 통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일들을 서포터즈가 하는데 저희 센터는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남양주 결혼이민여성 4)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역량이 있더라도 자존감이 떨어지면, 결혼이민여성 스스로 역

량개발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존감 회복이 결혼이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인터뷰 사례이다.

고부갈등도 진짜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서포터즈나 멘토를, 저희 서포터즈 말고 멘토도 있어요. 보내드리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언니처럼 아니면 동생처럼 물건 사는 것 아니면 시어머니 문제를 사회화시키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위안이 되잖아요. 문제를 사회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장치를 저희가 많이 활용해요.(남양주 3).

또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전문인력화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포터즈나 멘토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정보가 많고, 다른 결혼이민여성들에게도 매력 있는 일이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은 사회적 지지 활동이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력과 네트워킹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군으로 이동할 확률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좋은 자리를 먼저 연계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자기 요구를 많이 얘기하고, 어쨌든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이 과정 자체가 취업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이럴 때는 취업의 의사에 대해서도 표명을 하고, 이러면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도 얘기하고, 과정 끝날 때쯤에는 어쨌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교육이면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과도 이분이 경제활동에 대한 준비선상에 있다는 면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된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통합과정이 2~3개월을 꾸준히 센터하고 접점을 만드는 거라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센터가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사람도 그런 것들은 있죠.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접점이 생겨요.(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인터뷰 참석자들도 사회적 지지 서비스의 중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지지 서비스는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지역사회의 전문화된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 서비스는 부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담당자, 현장 전문가, 결혼이민여성 모두 공감하였다.

김제의 상황을 놓고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계들이 그다지 없어요. 어린이집도 어린이 집 학부모들 모임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 일을 하다가 만날 수 있지만 학교도 특별하게 학부모 모임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곳은 통장회의 있고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있을 텐데 이것이 통장들이 개개 가정방문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지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김제지역에 있으면서 뭔가 참여하는 조직이 없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저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분들이 한국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라든가 생활요리교육이라든가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 한국어와 함께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역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유적탐방 등 적응을 돕는 교육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언어도 되시고 다문화이해강사로서의 역량이 되셨을 때는 다문화이해강사로 양성을 해서 교육을 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고등학교, 요청하는 기업이 있다면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분들의 자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 소개하는 그런 다문화이해교육활동을 해요. 그런 것 외에는 그동안은 없었고요. 다만 요즘은 저희가 지역사회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는 차원에서 지역에 공고를 해서 다문화음식도 준비하고 다문화 자국에서 가져온 물품들도 판매하고 이런 음식도 판매했습니다.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간 4회를 했었고 분기별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게 됐는데요. 다문화 친구들이 필리핀, 중국, 베트남 나라별로 음식부스를 이용해요. 그러면 원래 자기 나라 음식인데 한국 입맛하고 맞게 퓨전화시킨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을 저렴하게 팔아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오셔서 거기서 음식도 맛보고 소통도 좀 하고 이런 자리 마련을 했는데 시작단계죠.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는 자조모임들이 이렇게 나라별 자조모임 여성분들끼리 모여서 선배, 후배가 함께 이렇게 멘토멘식으로 하는 자조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장터 수익금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자조모임이라든가 현재까지는 취미활동 자조모임 식의 자조모임이지 여기에 일반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어른 합창단 활동을 할 때 처음에는 저희 다문화 여성들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지역민들하고 함께 가자는 차원에서 자원을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지만 여유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 합창단 활동도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김제시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함께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은 사실은 취업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한국인들과의 교류, 그것이 첫 시작일 것 같아요.(김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2.3.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업관련 교육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교육은 단순한 기초농업교육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이나 유통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높았다. 이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만 시부모님들은 농촌에서 결혼이민여성은 읍내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향후 시부모님들이 농업이 어려울 때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지원제도라 판단된다. 현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재배를 잘 못하지만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팔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가공과 유통관련 교육을 받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농가소득도 올라갈 수 있으며, 결혼이민여성도 원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재배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지역에는 이러한 예비 결혼이민여성인력이 상당수 존재하며, 향후 중요한 농업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농업기술교육에 가공이나 유통관련 전문인력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특히 국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 흥성에서 한 달에 한 번 시장 열어요, 밤에. 그러면 그날 이 친구 야채 방법 배웠잖아요. 야채 키우고 그날 시장에서 장사했었어요, 우리 한 부스 신청해서. 신청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명으로 등록하고 배웠었어요. 그 장터에서 장사했었고, 그런데 처음에 베트남 야채는 향기가 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사지 않았었어요. 우리도 그것 알지만 나가서 판매하고 한국 사람도 줬었어요. 그런데 점점 모여져요. 요새 마트에 가면 고수 판매도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 뷔페가게에 가면 가끔씩 아시아 야채들 들어가요. 아마 나중에 잘될 것 같아요.

우리 채소가 향이 강하기 때문에 채소만 드시면 한국 사람이 안 맞잖아요. 음식으로 시장에 참석하면 판매할 때는 음식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조금 넣고 드시면 조금 더 나오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웠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원만 모집해 주고 농업기술센

터에 토스해 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어요. 매년 품목이 달라요. 올해 특히 여기 담당자 중에 베트남학과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그 교수님이 베트남 이주여성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참석자가 베트남이랑 중국 10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도 중국학과도 있어요. 중국어학과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 위주로 두 나라만 잡았어요. 인원을 모아서 주면 나머지 경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거기서 책임지고, 씨앗을 심는 방법, 수확시기, 판매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홍성 결혼이민여성 5)

찾아가는 서비스 형식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자는 거주 기간 5년 미만인 자로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화 단계에 접어든 결혼이민여성들 대상의 교육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이민 직후에 필요한 교육 이외에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 분들이 내가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구인을 워크넷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구인이 없는데 워크넷에서 구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다 도농복합단지라고 얘기해서 도시, 반월공단, 시화공단 도시가 있고, 대부도라고 하는 지역이 농촌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대부도는 포도농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대부도 상황을 저희가 보면 어쨌든 여기에서 떨어져 있어서 여기서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차로는 30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도에 계시는 분들도 욕구는 있으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조금 우리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3년 전에는 선생님 한 분이 주민센터 같은 장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 한국어 교육을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포도를 수확해야 된대거나 하는 완전 수확철이 되면 모든 게 올스톱이더라고요. 이것을 포장해야 되고 이것을 따야 되고 이래서, 그 분들이 그때는 한 달 두 달은 아예 수업 자체가 없고, 농촌의 특성상 그때 아니면 안 되니까 다 매달려서 하는 경향이 있고, 시부모님들이나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모든 농촌에서 밭일, 논일,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다 결혼이주여성의 몫이 되는 거예요(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2.4. 일반 취업관련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민간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가공인 자격증과 달리 민간협회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은 취득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신청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교육 받아요. 남편 아파서 응급실에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교육은 지나가요. 지나가서 안 돼.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여기 요양보호사 학원이 있어요. 거의 100% 합격률이에요(홍천 결혼이민여성 3).

학습지 학습사 자격증을 땀어요. 저희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교육 받으면 해줘요. 한솔싱크빅에서 내가 중국어 강사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서울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이 증서를 줘요. 몇 번 시험을 봐서 교육 받으면 선생님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홍천 결혼이민여성 2).

전문인력에 진입한 결혼이민여성이 그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이나 다른 전문영역으로 이동을 위해 대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들 중에 대학교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통·번역사도 전국에 300명 가까이 있어요. 중국, 베트남 등 몇 개 나라에서. 이분들도 처음에 입사할 때는 다 똑같은 결혼이민자예요. 모텔 청소하고 식당일 하고 간병 하다가 이런 다문화센터가 생기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직장을 찾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다 석사, 박사, 학사이고 나는 고졸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졸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해서라도 방법을 내서 내가 대학 자격증을 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하려고 내가 복지사로 도전하는 거고, 지금 지금 통·번역사를 하다가 사회복지사를 따서 복지사 일로 넘어간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꾸준히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면 결혼이민자들이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은 제가 과대평가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민자들 우리 센터에도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었어요. 두 분, 이선미하고 정수련 주임이 통·번역사로 들어왔다

가 서울여자대학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시고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 가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남양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2.5. 전문인력화 과제와 요구

전문인력화에 대한 농어촌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문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한계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화 진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강력하게 원하는 반면, 자격증 취득에 성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우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제공했음에도 자격증 취득률이 낮게 나왔고,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경력개발을 위해 자격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여성은 제과제빵 기능장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서 자격증 취득이 전문인력에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한국어 서비스였다.

문제는 시험 한국말이, 한국말을 하면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기본 생활 단어는 괜찮은데 시험 할 때 이런 거나 한자 있잖아요. 한자말이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필기한 그것만 어려워요. 한국말은 하얀색 하면 하얀색만 아는데 흰색도 있고, 가루는 분말도 있고 너무 어려워요(김제 결혼이민여성 4).

민간 학원 가서 한국사람하고 같이 교육받으면서 자격증 따서요. 처음에 한국어 너무 어렵잖아요. 필기는 몇 번 정도 떨어졌어요. 너무 어려워서 맨 처음에 한번 문제 문장 나오잖아. 다 틀려요.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자 똑같이 섞으니까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시험 보니까 합격했어요. 지금은 제빵제과 그 다음에 초콜릿, 케이크, 위생 자격증 5개 가지고 있어요(김제 결혼이민여성 1).

한국어 교육하고 자격증 한국어가 달라요. 자격증 한국어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바리스타를 봤더니 외래어들, 바리스타는 특히 외래어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이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김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한국말에서 맞지 않다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갈려. 그냥 맞는가, 틀리는가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시험 볼 때는 맞지 않은 것은? 하는데 완전 어려워요(김제 결혼이민여성 2)

자격증 취득이 결혼이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점을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격증 취득으로 인생계획과 자존감 회복 그리고 자녀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으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만큼 제가 준비가 된거니까. 실제로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 문의는 좀 해요.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공부할 수 있는 것 뭐 있나요?” 그런 것은 있는 편이에요(남양주 결혼이민여성 5).

내가 조금 더 공부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같은 분야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용 계열에 가면 내가 얼굴도 해야 하고 머리도 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제 옛날처럼 식당은 안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초창기에 한국 왔을 때는 식당도 다니고 공장도 다녀보고 했어요. 그때는 뭘 해야겠다는 엄두가 안 났을 때니까. 저도 혼자 뭘 차려서 제 가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홍천 결혼이민여성 2).

인터뷰를 통해 자격증 취득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장벽 또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의 조건에 ‘사회적 관계’에 능숙한 지역리더의 역량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협은 ‘결혼이민여성 대학’을 수준별로 시작하는 단계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사회적 지지 형성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문인력화의 첫 번째 장애물인 한국어 능력시험과 자격증을 획득하였더라도 주류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

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스스로 주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저희가 서포터즈, 본인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후배들을 할 수 있는 활동들, 서포터즈 활동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요즘에는 동마다 사회복지체계가 조금 바뀌면서 계층별로 이렇게 영역별로 위원들이 위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거나 통장이나 동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목표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게 영역을 저희가 조금 만들어주는 게 10년 이상 된 분들은 역할이 아닌가? 이 부분은 많이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100인을 목표로 장사 하시는 분, 원어민 영어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 지역에서 계속 다문화와 관련된 신문을 쓰시는 분 계세요. 기고, 모니터 요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리고 다문화강사로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설계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결혼이주여성들 중 본인이 자기계발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의 그룹을 보어떻게 지역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포지션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에서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에게는 조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지역사회로의 소극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홍천의 경우 ‘문화적십자’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에 봉사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결혼이민여성 스스로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도 함께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장 할 때도 봉사와 김장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할 때도 하고, 행사할 때도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같이 봉사해서 같이 대한적십자에서 오시면 봉사를 같이 해서 같이 팔고 있고, 집수리하잖아요. 집수리 하는 데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서 봉사를 해서 같이 청소도 해 주고 작은 것, 큰 것. 홍천지구 협의회 적십자 회장님이 다문화적십자를 이렇게 하나 설립하면 다문화결혼이민자 이미지도 좋잖아요. 홍천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들 되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다문화화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문화적십자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홍천 결혼이민여성 4).

다음으로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수요가 있지만,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교육훈련 참여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기관의 접근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역의 접근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농협을 통한 전문인력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인터뷰 참석자들이 동의하였다.

센터에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다문화 결혼이민여성한테 좋은 정보도 많이 주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 이런 것 있으면 많이 알려주고 그런 것을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이구요, 그리고 한국 다문화결혼이민여성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특히 홍천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멀리 내면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진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센터에서는 진짜 해 주고 싶은데 국가에서 교통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홍천 결혼이민여성 4).

인터뷰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수요와 그들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전문직이라 하면 만족도 있고 가족이 화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엄청난 파급효과잖아요. 내가 움츠려있고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애들도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서 왔는데 “자신감이 없어, 한국말을 못한다, 못한다.” 이러니까 말을 안 한대요, 모이면. 말을 안 하니까 애가 한국말을 못 한대요. 애도 말을 잘못하니까, 만약에 내가 전문직이라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면 애들한테 그 효과가 넘어가서 애들도 자신감이 있어서 나라의 일꾼이 되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효과

좋아요. 나는 긍정적으로 전문직이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사회에 대해 그렇고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남양주 결혼이민여성 6).

전문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전문인력 진입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집단에 다르게 적용되었다. 먼저, 농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은 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하는 전문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지역사회와 결혼이민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공헌형 전문일자리 발굴에 대한 수요가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양보호사 대한 수요가 높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저희 센터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0년 동안 이분들이 통·번역사로도 오고 1세대들이 와서 포진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에는 더 윗 단계로 가야지 밑에서 토픽을 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통·번역사 선생님들은 7~8년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희가 교육 했던 새로운 분이 “정말 괜찮다, 저 사람.” 싶어도 파이가 없는 거예요. 병원 코디네이터로 보내고 싶지만 거기도 세 자리, 네 자리 늘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만 거기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양성해도 서울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결혼이주여성들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센터가 할 일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거기에 이 사람들을 조금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촌 사람들이 뭔가를 배워서 도시로 나오고 싶으면 도시에 이미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 농촌에서 농림식품부나 이런 예산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포장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4~5시간 집단적으로 일을 하면 농한기 때 부업처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고 단순한 것을 배워서 농촌에서 계속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도 오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농촌은 정말 돈이 있다면 농촌 나는 그 동네 안에서 이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3.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성공사례 분석 결과

3.1. 성공사례 개요

3.1.1. 사례 선정기준 및 조사목적

먼저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이 전문 인력으로서 성공한 사례를 선정한 기준은 앞서 II장과 III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첫째, 1차 농업생산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영농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농가 경영에 필요한 재무지식이나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것,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 현재 농가 경영주이거나 향후 경영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농촌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농촌 관련 2차,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농업인을 선정하였다. 이 여성들은 종사하고 있는 직무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고용형태는 가능한 한 정규직이고, 향후 지속적인 경력개발 필요성이 있으며, 농촌지역사회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성공사례 선정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일부 조건은 취사선택을 해야 했다. 이와 같은 사례선정 기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농촌형 새로일하기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4명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한 목적은 한국의 농업·농촌 관련 남성과 결혼한 이민 여성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농업·농촌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3.1.2.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사례 지역을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하였다. 조사내용 기록은 면접 참여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녹음한 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접소요시간은 사례에 따라 약 1시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기간은 2016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사례가 1차농업에 종사하는지, 2·3차 농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4-3. 성공사례 면접조사 내용

구분	영역	세부내용
공통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시점 -출신국가, 결혼연령, 학력 -결혼 전 원 국가에서 직업 및 취업경력 -한국 남성과 결혼 동기 및 과정, 기대사항 ○ 현재: 연령, 혼인상태, 자녀(연령)
농업종사자	농가경영주 여부 및 영농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적 경영주 여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등록 현황 ○ 영농규모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영농 종사분야 -관련 지식 습득 방법 -관련 교육이수 이력, 자격증 획득 등 -애로사항, 극복방법
	재무관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경영 재무관리 역량 -연간 순 소득 -본인 명의 통장 개설 여부, 소득 분배 -재무관리에 대해 교육 이수 경험 -애로사항, 극복방법
	인력관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력 여부 및 관리 방법 -농가 고용인력 규모, 고용형태 -고용인력 관리 방법 -인력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경험 -애로사항, 극복방법

구분	영역	세부내용
	지역사회 소통 (네트워크)	○가족의 지지 -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 ○지역사회 참여 현황 -참여 단체 -주요 활동 내용 -애로사항, 극복방법
	정책지원 요구	○농업 전문인력으로 지속하기 위한 정부 지원 요구
농산업 관련분야 종사자	취업상태	○취업동기 ○결혼이후 한국에서의 취업경력 ○현 직장에서 근속년수 ○현재 취업 상태: 고용형태, 직위, 월급, 근로조건 등
	자격증 취득	○농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 (국가, 민간자격증 포함)
	경력개발 지속	○향후 직업 경력 지속 위해 필요사항, 경력개발 계획
	지역사회 소통 (네트워크)	○가족의지지 -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 ○지역사회 참여 현황 -참여/지원받는 단체 -주요 활동 내용 -애로사항, 극복방법
	정책지원 요구	○향후 직업 활동 지속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요구

3.1.3. 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성공사례 4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은 일본인이며, 현재 44세이다. 학력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결혼 전 직업경력은 일본에서 일반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으로 결혼이민 후 체류기간은 16년에 이르고 있다. 자녀는 아들이 2명 있으며 각각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다. 현재는 전북 익산의 ○○면 농촌에 거주하

면서 지역 전통시장 내에 있는 홈패션 사업단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있다. 결혼 이민 후 지금까지 익산에서 계속 살고 있다.

사례 2는 우즈벡 출신이며, 현재 34세이다. 학력은 우즈벡에서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결혼 전 직업경력은 중국식당과 한국식당 2곳에서 각각 3년씩 근무한 바 있다. 한국으로 결혼이민 후 체류기간은 11년이 되었다. 자녀는 아들 2명이 있으며 각각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다. 직업은 포도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업인이며, 결혼이민 후 현재까지 계속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사례 3은 필리핀 출신으로 현재 43세이다. 학력은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 ○고○○씨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공항에 근무하였다. 현재 가족은 남편(56세)과 큰 아들(중2, 15세), 작은 아들(초6, 13세)와 함께 경상남도 마산 함안에서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사례 4는 중국 출신으로 현재 38세이다.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현재 남편(48세)은 회사원이고 딸(초2, 9세), 아들(유치원생, 7세)과 함께 유치원과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로 근무하면서 창원에서 살고 있다.

표 4-4. 성공사례 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사례명	출신국가	현재 연령	학력	본국 직업	체류 기간	자녀	직업	거주 지역
사례 1	일본	44	고졸	회사 사무직원	16년	아들 2명 (중1, 초 3)	홈패션 미싱사	익산
사례 2	우즈벡	34	고졸	음식업체 근무	11년	아들 2명 (초4, 초2)	농업인 (포도)	안산
사례 3	필리핀	49세	대졸	공항 근무	16년	아들 2명 (15세, 13세)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경남 함안
사례 4	중국	38세	고졸	미용사	10년	딸(9세), 아들(7세)	다문화 강사	경남 창원

3.2. 성공사례 1 : 농촌지역 이민여성센터가 설립한 홈패션 사업단 근무

3.2.1. 결혼이민 동기 및 배경

사례1은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생활의 일환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하게 된 경우이다. 2001년에 현재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였다. 그녀는 통일교 신자이며 남편은 통일교 결혼문화에 따라서 만나게 되었다. 일본에 거주할 때 주변에 통일교 지인들이 많이 있었으며, 한국의 통일교 신자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갈등이 없었다. 사례1은 결혼식을 마치고 곧 바로 통일교가 제공하는 한국 생활 적응훈련 과정을 4개월 동안 단체로 받았다. 이것은 통일교 신자가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임시생활을 단체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한국어, 한국 음식 만들기, 시장보기 등 실제 생활체험을 위주로 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요리 배우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실제로 해 보고,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남편하고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3.2.2. 한국어 습득

결혼 당시 사례 1의 한국어 실력은 인사정도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례 1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언어를 배우지는 않았으며,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다고 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4개월 동안의 임시생활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웠다.

“교회에서도 오다 보니까, 4개월을 교회에서 임시로 생활해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한국 말 배웠습니다. 그 때는 그냥 생활을 한 거니까 그냥 듣고 배우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 이후 남편과 생활하면서는 TV를 보고 배우거나,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 지인 또는 남편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습득하였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학교나 그런 데 도움이 되는 데서 배운다는데 저는 그런 곳에 안 다니고, 스스로 TV 보거나, 주변에도 통일교 일본 언니들 많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또 남편한테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거죠.”

한국 체류기간 16년차인 사례 1의 현재 한국어 실력은 말하기는 통역 없이 거의 어려움 없이 가능하며, 읽고, 쓰기도 상당부분 가능하다고 한다.

3.2.3. 취업 동기 및 관련 기술획득, 현재 취업상태

먼저 취업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다. 하나는 경제적 소득의 필요성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여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 2명이 자라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였다.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계속 놀 수도 없고, 애기만 키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동기는 사례 1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시민단체의 일자리 제공이 계기가 되었다.

“직업을 갖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어디 회사 들어가서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역 여성단체에서) 이런 직업 기회 주시니까 이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례 1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결혼이민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여성지원단체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사)농촌이민여성센터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과 향후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만든 지역여성 공동체다.¹⁷⁾ 이 단체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영농교육, 자립·자활, 중고생 상담 및 아동 돌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단체이다.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에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을 지원받아 두리두레 사업단을 꾸리게 되었다(여성농업인신문, 2012-5-23)¹⁸⁾. (사)농촌이민여성센터에서는 홈패션, 도배·장판, 전지·정정 등을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교육하였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2012년 4월에 지역 전통시장 내에 ‘두리두레 홈패션 매장’을 열게 되었다. 매장건물 보증금은 결혼이민여성들과 지역주민들 50여명이 함께 출자금을 모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이 다문화 가정 모두의 것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여성농업인신문, 2012-5-23). 이 사업단은 현재까지 결혼이민여성을 2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례 1은 이 중의 1명이다. 사례 1이 이 센터를 알게 된 계기는 2008년 즈음에 센터가 설립되고 곧 센터 관계자가 본인을 먼저 찾아와서 활동내용을 소개해 줘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이민여성은 지역에 어떤 관련단체가 있는지 정보가 얻기 힘들 수 있으므로 지원단체가 먼저 결혼이민 여성을 발굴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1이 지금의 홈패션을 만드는 미싱사가 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이다. 첫 번째 직업교육훈련은 2008년경에 (사)농촌이민여성센터가 제공하는 일자리 교육에 참여한 것이다. 센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교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홈패션이 본인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한다. 이 센터에서 홈패션에 대해 6개월간 배웠다. 그 후 지금의 두리두

17) 사례 1과의 면접조사 과정에서 사례 1이 근무하는 사업단의 대표자가 설명하였다 (2016.11.16.)

18) 자료: 여성농업인신문, 2012-5-23. “이주여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다-전북 익산시 (사)농촌이민여성센터 ‘두리두레 사업단’”

<http://women.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4>에서 2016.11.4. 인출

레 사업단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직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대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는 두리두레 사업단 일을 그만두고 교육훈련에만 참여하였다.

셋째, 관련 기술 자격증 획득 여부를 보면, 두 차례의 홈페이지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양장기능사 같은 홈페이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획득하지는 못했다. 실기보다는 필기시험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였다.

“실기하고 필기도 있어서, 실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하면 되는데 필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국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나씩 좀 더 있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필기시험이 한국어로 다 돼 있으니깐. 일본어로 돼 있는 교재가 따로 없어서 어려웠어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된 기술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격증 관련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가 한국어로 되어 있고, 시험문제도 한국어로 출제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¹⁹⁾

넷째, 한국에 결혼이민 후 취업경력을 보면 하나의 동일한 직장에서 2회에 걸쳐 취업과 재취업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례 1은 결혼과 함께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다가 2013년~2014년에 두리두레 사업단에 아르바이트처럼 임시직으로 1차 취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서 잠시 취업을 중단하고 다시 임시직으로 복귀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례 1은 2015년에 두리두레 사업단에 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다섯째, 현재 취업상태를 보면 4대 사회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초등학생인 둘째

19) 사례 1은 현재 운전면허증을 획득하지 못했다. 운전면허증을 획득하려고 도전했다가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한다.

자녀는 학교가 사업단 매장 근처에 있어서 학교를 마치면 매장으로 도착해서 사례 1과 함께 집으로 간다. 이와 같은 근무시간은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월급은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7,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월급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현재 사례 1은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 내에서도 일과 가정 병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둘째 애는 끝나면 여기 와요. 같이 집에 가고 하니까. 큰애는 중학생이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하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직장이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이 자금을 모아서 농촌이주여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홈패션 기술도 계속 공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도 일하면서 본인보다 더 잘하는 다른 직원이나 한국인 대표로부터 틈틈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기를 희망하기는 하지만 본인은 공부를 잘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자신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홈패션 기술을 배우는 기회 있으면 더 배우고 싶고, 마지막 자격증 진짜 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1이 취업 관련 기술을 획득하고 취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농촌이민여성센터의 지원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20) 사례 1의 경우 익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리가 멀고 본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3.2.4. 가족의 지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1은 결혼이민 이후 지역생활 네트워크 활동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남편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아내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사례 1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면 이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하였다.

“남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하라고는 해요. 배우고 싶으면 그냥 배우러 가라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시부모도 사례 1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다. 결혼 당시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으며, 시어머니는 혼자 시골에서 사시다가 올해 봄에 돌아가셨다. 이와 같이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는 사례 1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관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력자도 아니었고 반대자도 아니었으며 사례 1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사례 1은 2008년에 (사)농촌이민여성센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대체로 이렇다할 지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결혼이민 후 초기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주로 집안에서만 지냈다.

“처음에는 한국말 못하니까 나가기도 싫고, 전화 받기도 싫었어요. 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지역에 있는 (사)농촌이민여성센터가 본인을 찾아와서 알게 되면서 틈틈이 센터에 나가게 되었다. 여기서 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농촌으로 결혼 해 온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 여성 활동가도 만나게 되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례 1의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이 되고 있다.

“이민센터 이사장 되는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리이러한 센터가 있는데 나하고 같이 뭐 배우러 가든지 견학 가든지 가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 하셔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센터에 나가다 보니까 한국분이랑 이야기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다 보니까 동갑이네 해서 친구가 되고, 같이 잘해 주니까 마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때 만난 사람들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3.2.5. 향후 정책지원 요구

사례 1은 결혼이민 여성이 농촌지역에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이해와 배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부 당사자 간의 이해하려는 자세가 서로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나 지역사회단체나 공공기관이 부부의 상호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여성들이 편하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주여성끼리 만나는 장소가 필요해요. 여기는 이민센터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런 것이 없는 데는 밖에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내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거기 가면 바로 필요한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어떤 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장소뿐만 아니라 결혼이민 여성의 어려움이나 필요한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 지원 기능을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3. 성공사례 2 : 포도농사 짓는 농업인

3.3.1. 결혼이민 동기 및 배경

사례 2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인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3일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이 23세 때였다. 우즈베크에서 사촌언니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근무하면서 종종 한국남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지만 모르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약간 불안해서 거절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아는 지인이 현재의 남편을 직접 데리고 와서 소개해 주었는데 착해보여서 결혼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사례 2는 우즈베크에서 16세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결혼이민을 하기까지 열심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공부를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래서 16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규모가 비교적 큰 중국레스토랑에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일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약 3년간 근무하였으며, 다시 한국식당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며 졸업을 하였다. 우즈베크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이나 가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한국 화장품이나 다양한 상품들이 유통 판매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냥 살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한국에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부모님은 비교적 큰 포도농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결혼한 후 안산의 시골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3.2. 영농활동 참여 동기 및 현황

먼저 사례 2가 포도농사를 직접 주도적으로 짓게 된 동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2는 결혼이민 후 직장에 취업을 한 적은 없으며, 시부모님이 평생 동

안 경영해 오던 포도농사를 보조하는 일을 해 왔다. 그러다가 4년 전부터 좀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2년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당초에 포도농사는 시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2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서 포도농사를 짓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사례 2는 포도농사의 절반을 다른 아는 사람에게 위탁재배를 맡기고, 절반은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짓고 있다. 사례 2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는 ‘포도농사는 내 살림이다’라는 강한 생활력과 도전의식이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포도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직업이 따로 있어요. 어릴 때 연탄가스 사고로 정신 발달 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예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농사짓는 것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작년까지 아버님도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원래 어머니, 아버지랑 하시고 처음에 저는 조금 조금 도와줬다가 4년 전에 조금 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살림이니까 점점 하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 대신으로 시작했어요.”

남편이 아니라 사례 2가 직접 포도농사를 주도적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남편의 건강상황이 포도농사를 책임지고 짓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어릴 때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고를 당한 후 현재 정신적 성장 수준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계절별로 해야 할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에서 사례 2가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와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셈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례 2가 포도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부모님이 평생 동안 일구어 온 농장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사례 2는 우선 농장의 절반만이라도 직접 지어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사례 2의 포도농장 규모는 포도나무가 약 1,400주이며, 모두 비닐하우스로 짓고 있다. 이 규모는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고 한다.

둘째, 사례 2가 포도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영농기술을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

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2가 포도농사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익히게 된 힘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큰 원동력은 시아버지의 영농기술 전수와 수년 동안 기록한 포도농사에 관한 영농일지이다.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포도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2년 전부터 사례 2에게 이런저런 것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

“아버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한다고 2년 전부터 저를 자꾸 가르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대충 대충 잡아매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해. 나중에 해.” 그러셨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고 점점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듣고서 배웠다고 생각 했는데, 막상 제가 작년에 혼자서 포도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너무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되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도 엄청 많은데 이것을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절반 정도는 아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영농일지는 사례 2가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참고하고 지침으로 삼고 있는 교본이다. 시아버지의 영농일지는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사례 2가 이어서 영농일지를 쓰고 있다.

“아버님이 항상 기록해놓으시고,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날짜와 그 날의 날씨까지 다 적어 두었어요.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걷어 올린 시간과 내리는 시간, 판매 개시 날짜, 판매량 등 모두 기록하셨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포도농사를 주자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해보자고 그랬어요. 아버지 기록이 있으니까. 저도 그 기록은 또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기록하셔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마다 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떤 포도가 됐어, 뭐가 부족했어, 이렇게 다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번 겨울에 나와서 교육을 해 줘요. 거기서 나와서 올해 기온이 이렇게 돼서 포도가 안 되는 집이 왜 그러는지 어찌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다 기록해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교육 내용과 우리집 포도농사 결과하고 비교해서 혹시나 이런 기온이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항상 쓰시는 거야.”

사례 2는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영농일지를 참고하여 본인이 직접 포도농사에 도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입원해 계시는 시아버지께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들었다. 시아버지가 지난해에 돌아간 후 올해는 혼자서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가끔씩 동네 주민에게 영농기술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집집마다 영농기술이 다르고 시아버지의 영농일지와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에는 시아버지의 영농일지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사례 2가 포도농사 기술을 배우는 두 번째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번 겨울에 나와서 설명해 주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시아버지가 참석하였다. 사례 2는 지난해 겨울에 이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 교육하잖아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 같이 교육 받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가 바뀔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있죠. 약이나 비료를 어디서 쓰는 건지, 얼마 정도로 이렇게 몇 프로가 좋은 점, 나쁜 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배워야 되니까 배운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례 2는 포도농사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익혀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감이 없다고 한다.

“항상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걱정이 돼요,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다가도 자신감이 생길 때는 포도를 이렇게 딱 보고 ‘아,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면 딱 보면 ‘왜 그랬을까? 왜 안 됐어?’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해요.”

셋째, 포도농사를 지은 후 판매 전략을 보면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단골고객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전화로 포도판매 개시를 알리는 연락을 한다. 그리고 포도농장 앞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길거리 판매를 직접 하는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시장에 도매로 판매하는 것이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직거래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이 많이 와요.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오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님들이 매년, 매년, 제가 처음부터 왔을 때 오시던 손님이 아직도 단골손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골손님들께 제가 해마다 문자로 날려요. “포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택배로 보내요. 단골손님 정보리스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포도농장 명함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포도박스에 전화번호가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전화 오셔서 나 누구라고, 가고 싶은데 가기 어려우니 택배로 보내 달라. 이렇게 하실 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 지면서 소비가 줄고 있어서 개별판매로는 모두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장 도매판매를 주로 하였다고 한다.

“제가 작년보다는 올해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경기 안 좋고 소비가 잘 안 되잖아요. 속상했어요, 못 팔까 봐, 나가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시장으로 보내자. 올해는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불안하게 사시니까 잘 사먹지 않고 이러는 것 같아서요.”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수확한 포도는 모두 판매 하였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연간 순 소득이 약 3,000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포도농사가 잘 안되어 지난해 소득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포도농사 수확이 좋았다고 한다.

3.3.3. 노무 및 재무관리 역량

먼저 노무관리를 보면, 사례 2는 포도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다른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모두 하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많이 바쁠 때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고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1년 중에 하우스 포도농

사의 시작은 2월에 시작한다고 한다. 1년 중 월별로 일하는 것이 다르고 노동 강도도 다르다.

“2월에는 그렇게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 3월부터 순이 나올 때는 가지 정재하고 그때는 거의 약으로 치고 그래요. 아침에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조금 조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3월 초에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요, 날씨 따라서, 그리고 해가 나고 따뜻할 때는 거의 매일 매일 농장에 나가요. 대략 아침 7~8시에 나가서 너무 덥기 전까지 일하고, 거기서 식사도 해 먹을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 해 먹고 저녁때 6~7시 경에 집에 오죠. 5~6월에 많이 바쁘는데 그럴 때는 아침 7시에 농장에 나가서 저녁 8~9시 쯤 돼야 집에 와요. 이때는 진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해야 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그냥 제가 혼자서 해요.”

다음으로 사례 2는 재무관리도 스스로 하고 있다.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남편의 월급으로 본인 가족 생활경제는 사례 2가 직접 하였다고 한다. 보험 가입이나 연금저축, 은행이동 등을 혼자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다. 현재 농지나 집 등 부동산은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사례 2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다. 하지만 포도농사를 직접 짓고 나서 얻은 수익은 사례 2 본인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땅이라든가 집은 모두 남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저는 포도를 팔아서 얻은 수입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관리해요. 신랑이 직장 다니잖아요. 제가 받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그리고 농협에서 사는 재료나 외상으로 하는 게 본인이 직접 와야 결제할 수 있는데 남편은 직장에 다니니까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해서 조합원은 신랑 앞이지만 요즘에 금융적으로 다 가족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해서 신랑 재산을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도 시어머니와 남편, 사례 2 본인 모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3.3.4. 한국어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먼저 사례 2의 한국어 습득 과정을 보면 결혼이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사례 2는 결혼 전에 있는 한국식당에 3년여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말하기를 어느 정도 습득하였다. 그리고 우즈벡에 있는 한국어교육원에서 1년 반을 공부하였다.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을 배웠다. 하지만 몇 개월을 남겨 놓고 졸업을 하지는 못했다.

결혼이민 후 한국에 와서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며, 개인적으로 스스로 배웠다고 한다. 우선 한국에 오면서 우즈벡에서 한국어교육원에 다니면서 공부한 교재를 가지고 와서 혼자 공부하였다.

“제가 교육원에 다니면서 공부한 책이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올 때는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혼자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 있어.” 그러시는데 제가 집에서 할 게 없어요. 집안일을 다 하고 음식 다 해놓고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 집들이 멀어지고, 할머니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 가면 지나가면서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집에서 모르는 것 적었어요. 아니면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밑에서 자막이 써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서 따라 하고 적어서 붙였었어요. 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주방에도 붙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글로 쓰고 무슨 뜻인지. 그러다가 다니면서 말로만 들어서 배우는 건데 나중에 어려운 것 거의 TV에서 많이 배웠어요.

TV방송 보고 뉴스나 다른 방송이나 밑에 있는 자막들을 듣고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그거 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다음으로 한국에 와서 취득한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이 있다. 사례 2는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기 위해 1년 동안 운전학원에 다니면서 준비하였다. 세 번 낙방하고 네 번째 도전에서 합격하여 면허증을 취득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때문에 자꾸 떨어졌어요. 제가 2010년인가 2011년인가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필기시험 문제지가 영어, 베트남어 그리고 중국어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어

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 다 안 되니까 한글로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됐어요.”

사례 2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운전면허증을 꼭 획득하고자 한 이유는 이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는 농촌이라서, 시내 같지 않아서, 버스정류장이 있기는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이면 기다리는 자리가 없어요. 그때 애들이 어려서 하나는 업고, 하나 걷고 이렇게 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배워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항상 생각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는 병원 가면 하루 종일이잖아요. 갈 때 갈아타는 거, 올 때 갈아타는 거 저녁에 오니까. 저녁이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배웠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사례 2는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전 우즈베크에서 살았을 때도 식당일을 하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녀 졸업하였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교육원에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배웠다. 모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

3.3.5. 가족의 지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2는 결혼이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시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사례 2는 지역사회 단체나 정부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늘 일하지 마라, 농사하지마라 힘들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애기들 어릴 때는 애기 키우고 집안 살림만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데리고 시내에 가서 옷 사주고 그래요. 옷은 유행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마라고 하면서 조금씩 유행 있으면 또 사 입어라 하시고.”

사례 2는 결혼이민 후 현재까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넉넉하게 생활해 온 편이라고 한다. 사례 2가 지금까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이다.

“저는 항상 어려운 게 모르는 것,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잘 모를 때 제가 참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것이 힘들어요.”

이처럼 사례 2가 한국 농촌지역에서 정착하는 데 지지기반이 되어 준 것은 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정부 공식 기관은 거의 이용한 경험이 없다. 그리고 마을 이웃이나 자녀 학교 친구 엄마들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본인이 다문화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는 약간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고 한다.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례 2가 살고 있는 곳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다른 결혼이민 여성들도 센터에 가는게 쉽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단지 거리가 멀어서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이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이면서 물어보곤 하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아예 활동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사례 2는 거주 지역에서 다문화여성 서포터즈로 위촉 받아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문자로 전달해요. 그런데 모두 무조건 못 간다고 해요. 다 못 가고, 못하고, 그냥 활동 안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시내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어른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뭘 하나?, 어디 가냐?” 계속 물어요. 그래서 단체 이런데 활동하고 싶지 않아 해요. 뭘 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여기서 무슨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뭐 하려면 거리감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금방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집 밖을 나와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이나 동료 학부모들은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 터부시 하는 인식이 여전히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3.3.6. 향후 정책지원 요구

사례 2는 향후에도 직장에 취업을 하기 보다는 포도농사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포도농사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일하는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고 일반 직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항상 농사일 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직장으로도 보면 힘든 점이 있잖아요. 시간 단위나 안에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농사는 제 직장이니까 제가 시간 맞춰서, 시간 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갔다 올 때는 갔다 오고, 조금 더 편안한 직업이에요.”

따라서 사례 2는 포도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그리고 2명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첫째, 포도농사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좀 더 잘 배우고 싶으며, 이를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포도농사 짓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기는 하지만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더 배워야 되는지, 어디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아는 게 없어서 해마다 보는 거로만 기억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 농사만 하는 거라서 다른 직업이 없어서.”

둘째, 한글교육 등 기본적인 한국생활 적응 교육에 대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처음에 한국에 오면 항상 교육이나 이런 것 해 주잖아요. 단계 다 있죠. 한글 배울 때는 항상 가나다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그에 맞게 조금 더 높은 것을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항상 남편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신랑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셋째,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외국인 엄마를 둔 자녀들의 교육과 돌봄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항상 아이들이 조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조금 크면서 점점 바뀌잖아요. 발전이 되니까. 엄마도 그만큼 발전 돼야 되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엄마들 보다 못하는 것 같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엄마들이 교육 쪽으로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이나 이렇게 하지만 엄마들이 가면 이해할 수 있어야 들을 건데요, 못 알아들을 정도면 문제잖아요. 저도 보니까 참석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3.4. 성공사례 3: 함안 영상정보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3.4.1. 결혼이민 동기 및 배경

필리핀 출신 사례 3은 통일교를 믿었는데 통일교에서 남편을 소개받았다. 남편을 처음 만난 장소는 홍콩이었다. 통일교는 결혼할 남녀를 소개한 후 남녀가 6개월 동안 결혼해도 될 만한 상대인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아무 직업도 없이 통일교에서 함께 합숙하면서 지내고 남성들은 일주일에 한번 씩 예배하러 오면서 서로 만났다. 통일교에서 6개월 간 생활하다가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결혼하여 한국에 들어오기 전 통일교에서 한국문화와 음식 만드는 방법 등을 배웠다고 한다.

“아저씨하고 만나서 통일교에서 결혼해서.... 통일교, 종교적인 차원에서... 홍콩에서 만나서 축복결혼하고 5개월 있다가 나 한국에 들어왔어요”

“통일교에서 여자 분들은 한국사람 결혼하는 것 먼저 교회 안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 힘들어도 참석할 수 있는 것, 한국 들어올 때 밖에 못 나가잖아요. 한국음식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배웠어요.”

3.4.2. 한국에 입국 전 직업경험

사례 3은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공항에 근무하였다. 공항에서 맡은 업무는 물품을 사무실에 운반하는 일이었다.

“필리핀에서는 공항에서 일했어요. 사무실 갖다 주고, 공항 사무실 있잖아요. 다른 사무실에 이거 갖다 줘라, 저기 갖다 줘라.”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가서 간병인으로 3년 동안 근무하고 다시 홍콩으로 가서 5년 동안 간병인 일을 하였다.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본인과 계약하는 계약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병원에서 일본사람 밑에서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일본으로 가면 함께 이동하고, 홍콩 사람이면 홍콩으로 가게 된다.

“간병인은 싱가포르 3년 정도, 그 다음에 홍콩 5년 정도. 홍콩에 있는 동안 한 사람만 일하는 것 아니고 1년마다 바뀌어요. 일본 사람 간병하면 일본 따라 가고, 호주 사람 하면 호주 갔다가, 마지막은 홍콩에서.”

한국에 오기 전 싱가포르와 홍콩에서의 간병인 근무경험이 8년 정도이다. 간병인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

3.4.3. 취업 동기 및 직업경험

결혼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2004년 처음 식당을 하게 된 계기는 옆집에 사는 한국인 언니가 자기가 도와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장님도 정말 친절했고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하였다.

“동네 이장님하고 옆에 언니하고. 동네에 살았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나보고 일하러 안 다니니까 “성현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불러라. 나 집에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먼저 와서 그렇게 친절하게. 이장님도 나한테 진짜 잘해요.”

식당을 그만 둔 뒤 2011년 필리핀 친구 소개로 1년 동안 함안 종로M스쿨에서 영어강사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 하루 근무시간은 아침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학생 수가 적어 파트타임(오후 2시~저녁 10시) 영어강사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수강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이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영어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리스닝, 그램머, 프리토킹 등 전부 가르쳤다. 종로M스쿨은 취업 전 세미나를 개최해서 강습방법을 알려준다고 한다.

“친구 소개로. 우리나라 나보다 여기 오래 산 친구. 나보다 몇 년 동안 가르쳐주니까 나 보고 “너 가게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뭐하나? 영어 가르치는 법 알아?”, “모르는데.”, “간단한 거다.” 나보고 “공부 하는 것, 애들 가르치는 법 잘 배워라.”, “알았다. 언니, 가르치는 방법 일주일만 하면 할 수 있다.”, 배우고 나서 그 학원에 들어가서.”

사례 3의 경우 직업을 처음 갖거나 이직을 할 때 언제나 주변에서 물리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지원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함안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근무형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밤 10시부터 아침 6시인 3교대로 이루어진다. 모니터 요원은 총 17명인데 이 중 2명(본인과 중국에서 온 동료)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2017년 1월까

지 2년 계약했고 2017년 2월 계약이 만료되면 1개월 쉬면 다시 1년 계약할 수 있다고 한다.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밤 10시, 10시부터 6시.”

“17명, 한국인이 15명이고, 외국인은 나하고 중국사람 한명.”

“내년 1월에 하는데 3월 한 달 쉬고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이처럼 꾸준하게 직업을 갖게 만드는 요인은 자식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활력, 그리고 본인의 직업에 대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니, 한국사람 엄마들 애들 학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잖아요. 나도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학원 보내고, 나는 아직도 한글 못 가르쳐줬어. 나 외국인 이니까 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 못 알아들었잖아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왜 우리 아들 못 다녀. 나도 돈 벌어야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내고 하잖아요.”

“조금 어려워도 한국 살려면, 돈 벌려면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배우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내년에 1년 더 계약했는데 그 이후로 안 되면 2019년에는 뭘 해야 되니까. 여기 간병 일하면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것 따고 싶어요. 혹시 여기 모니터링 안 되면 간병 자격증 있으면 나도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3.4.4. 직업관련 자격증 취득 및 현재 직업

마을회관에서의 가게 운영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였다. 결혼하기 전 통일교에서 음식만들기 학습을 했었고, 결혼해서 한국에 오자마자 시누이한테 매일 반찬 만드는 것을 배웠다. 또한 마산다문화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요리 강습을 수강하였다. 교회에서 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 시누이와 동네 언니한테 배운 것 그리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이 음식 만들고 파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네, 교회에서 배우는 것하고 우리 형님 옛날에 만날 집에 왔거든요. 반찬 만들 때 나 만날 불러. 먹어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가끔 1년에 한 번 센터에서 음식 만들러 가요. 마산다문화센터, 여성센터에서도 3번 갔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센터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종로M스쿨에서 정규직으로 1년,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하면서 필리핀 친구의 소개로 들어오긴 했지만, 근무하는 동안 원장이라든지 동료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크게 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이전에 창원다문화센터에서 원어민강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창원다문화센터에서 원어민 강사가 있어요. 교육 받는 것 저쪽에서 배웠어요.”

현재 함안 영상정보관제센터에서 한국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함께 근무하면서 생활방식도 배울 수 있고 문화도 배울 수 있고, 한국말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한국사람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 현재는 함안다문화센터에서 한글교실 다니고 있고 화요일마다 마산복지관에서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음악 교실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수강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어울리면서 한국말 배우고 문화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 함안에서 한글 배우는 것 있어요. 함안다문화센터.”

“우쿠렐레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 음악 들으면 마음이 괜찮아요. 마산복지관에서 화요일에.”

“한국인하고 섞이는 것, 같이 하는 것 좋아요. 나도 한국말 아직 발음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고 생활하는 것, 우리 한국 살 거니까 한국 사람 생활방식도 배워야 해요.”

2017년 계약이 끝나는 것을 대비해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병인 프로그램을 수강할 계획이라고 한다.

3.4.5. 가족의 지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3은 남편과 2001년 결혼하여 한국에 들어와서는 2년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고 결혼 초창기는 한국문화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음식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웠다고 한다.

그러다 둘째 아들이 2004년 태어나면서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큰 아들 키우고 그냥, 둘째 애기 낳을 때까지 돌 지나서 우리 작은 구멍가게, 슈퍼 있잖아요. 둘째 낳고 슈퍼 장사했어요.”

가게를 따로 살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이장의 도움을 받아 동네회관에서 살림집도 살고 가게 공간도 마련해서 운영하였다. 보증금 500만에 월 15만원씩 냈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 아주 싼 금액이었다고 한다. 그 때 옆집 아주머니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었다고 한다. 주변에 공사가 있을 때면 라면 등 식사 30그릇이 한꺼번에 팔려서 그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마을이장과 옆집 아주머니와 같은 주변 조력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네회관에 가게하고 집하고 있잖아요. 가게하고 성덕이 1학년까지 가게 장사했어요. 네, 동네 슈퍼. 술도 팔고 동네 할아버지들 술도 먹고, 산에 내려오는 사람 막걸리 먹고.”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 마을회관인데 우리 전세 500만 원, 달세가 15만 원.”

또한 자발적으로 필리핀인이 모이는 자조모임에 참석하여 서로 정보교류 및 정서적 지지 그리고 좋은 자극을 주고받고 있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우리 만나요. 우리 마산팀은 30명. 어떤 사람은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학교 원어민강사도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3.4.6. 향후 정책지원 요구

사례 3은 현재 직장에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계약을 계속해야 하는 애로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음 직업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이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역 센터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년 계약 끝나고 한 달 쉬고 다시 계약하는 거예요.”
 “여기 간병 일하면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것 따고 싶어요. 혹시 여기 모니터링 안 되면 간병 자격증 있으면 나도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3.5. 성공사례 4: 다문화 강사

3.5.1. 결혼이민 동기 및 배경

사례 4는 중국인 출신으로 2007년 친척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난 후 비자수속 등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데 3개월 걸렸고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 현재 남편(48세)은 회사원이고 딸(초2, 9세), 아들(유치원생, 7세)과 함께 창원에서 거주하며, 유치원과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친척이 소개해 줘서 남편 만나서. 그래서 한국 왔어요. 남편 만나고, 처음에 만나서 괜찮으니깐 바로 서로 둘이 괜찮다고 바로 결혼식만 하고 3개월 후에 한국 왔어요.”

3.5.2. 한국에 입국 전 직업경험

사례 4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미용실을 개업하여 4-5년 정도 운영하였다고 한다.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도중 현재 남편과 결혼하였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학교 끝나고 바로 미용실. 미용 배우다가 자기 미용실 차렸어요. 4~5년 정도.”

3.5.3. 취업 동기와 직업경험

2007년 결혼 초 2년 동안은 창원 남지라는 시골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다문화 센터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만나는 사람이 없어 한국말도 늘지 않았다고 한다. 창원으로 이사 오고 나서 다문화센터와 희망나라센터(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상담실) 등을 다니면서 정보도 많이 접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다. 처음 지역 센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시어머니 친구가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한국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고 한다. 이 때 다문화센터를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센터를 자주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아마도 중국에서 미용사로 일했던 경험들이 있어 한국에서도 어떤 일이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한국말도 서툴러 지역 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와서 처음에 한국말 잘 안 하니까 처음에 너무 불편했어요. 우리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농사해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요. 친구도 2명밖에 없으니까 한국말 안 늘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매일 시골에 혼자 집에 있고 TV 보고 밖에 안 나와요.”

다문화 센터를 통해 지역의 여러 다른 센터들도 알게 되었다. 거주하는 창원에서 다문화 강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창원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강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였다.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이 프로그램 이수했고 수료증을 받아 원어민 강사로 등록하였다. 그 후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강사로 파견을 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다문화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2016년까지 거의 7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제가 2010년 할 때, 처음에 교육 받을 때 경남다문화센터, 마산에서, 마산문화센터 한번 교육했어요, 원어민강사 교육. 한 반에 여러 나라 사람 40명 있었어요. 그 교육 2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6시, 2주일 동안 하고 수료증 받아요.”

“우리 처음에 이력서 넣을 때 다 수료증 있는 사람만 이력서 넣을 수 있고, 교육 안 받은 사람은 못해요.”

3.5.4. 직업관련 자격증 취득 및 현재 직업

현재까지 사례 4는 다문화센터 등에서 한국생활과 직업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수강해 왔다. 2013년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중국어 통번역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한국어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이 취업을 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도 배우고 배운 것 많아요. 운전면허증을 배우고, 하는 것 너무 많아요. 만들기도 하고.”

“원어민 강사 이것도 중국어 통·번역 프로그램 경남다문화센터가 이 수업을 했었어요.”

운전면허증은 학교나 유치원 등 다문화 강사를 하는데 이동해야 하는 장거리를 시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어 자격증은 한국에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며 취업에서 우선순위를 점한다고 하였다.

“우리 수업하려면 30분 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 다문화수업을 할 때 체험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짐도 많아서 차 없으면 (힘들어요).”

“한국 자격증, 수료증 받는 것 너무 많아요. 일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수료증이 있어야 돼요. 학교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말 좀 약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조선족 하는 친구도 우리보다 장점이 있어요. 한국말 한국사람 똑같이 하니까 취직해도 조선족 사람 우선, 우선 아니고 한국말 잘 통하니까 잘돼요. 회사 들어가고 뭐 하든지.”

3.5.5. 가족의 지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4는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는데 있어 가족의 지지가 많았다고 하였다. 남편이 가사 일과 아이를 돌봐 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많이 도와주는 것 그냥 얘기 봐주는 것, 저녁에 들어오면 저녁밥 좀 해 주고 이렇게. 설 거지도 해 주고. 제가 가끔 해 주니까 피곤해도 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힘든 것은 다 가정을 위해서 하니까. 어디 간다 그러면 차로도 태워다 주고.”

남편의 지지 뿐만 아니라 중국인끼리의 자조모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정서적 지지 세력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우리 집 옆에 중국 친구 많아요. 가끔은 주말 우리 저녁에 같이 밥 먹으러 3~4명 같이 나오고, 가끔은 한국말 어디서 못해요, 몰라요. 옆에 조선족 친구 한 명 있어요. 통화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해줘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3.5.6. 향후 정책지원 요구

사례 4는 한국에서 다문화 강사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센터 윈어민 프로그램 강사로 수료증을 이수한 사람들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을 숙련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다. 또한 만들기 프로그램

에서도 이들을 강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 이래도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도 자격증 따고 우리도 주민등록증을 받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려면 어려워요. 다문화센터는 우리 외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다문화센터니까 우리 좀 키워주고 우리 우선 수업을 초대하면 우리 경험도 살릴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나가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우리도 안 쓰니까 밖에 나가면 경험도 없어 믿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들기 하면 우리도, 그냥 말만 좀 서툴러요. 우리 잘 만들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센터도 외국사람 강사 안 쓰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왜 한국 강사만 쓰고 외국 강사 안 쓰는지 몰라요.”

4. 소결

4.1.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FGI 분석

지금까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업 이동경로, 지역사회 참여 경험 및 사회적 관계 형성 관련 서비스 경험,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관련 교육이나 지원 경험, 일반 한국인 대상 취업관련 교육이나 지원 경험, 전문인력화를 위한 현재의 과제와 정책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직업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직 진입에 한국어 자격증과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적 관계형성 부문에 있어서는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 등 사회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분석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로, 사회적 관계형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행 취업관련 교육에 대하여 기초농업교육보다는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이나 유통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일정수준의 학력이나 농업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교육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집단을 위한 심화단계의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결혼이민여성의 자격증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민간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연계서비스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여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 한국어 자격증, 전문인력화된 교육훈련 등을 자신들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선행연구 및 통계분석 파트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된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변수가 결혼이민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이 교육의 경험이 없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이 미비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증진 프로그램 등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사회에 적용된다면, 이들의 전문인력 진입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2.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성공사례 분석

이상으로 성공사례 4명에 대해 결혼이민 동기와 배경, 취업 또는 영농활동 동기와 관련 기술 습득 방법, 어려운 점과 극복방법, 한국어 습득, 향후 정부 지원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사례 1, 2를 살펴보면, 결혼이민 여성은 농촌에 정착형태가 다르므로 정착하기까지의 성공요인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례 1은 농촌에 거주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으며 임금근로자이고, 사례 2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혼이민 이후 농촌지역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요인은 공통요인과 구별되는 요인으로 나누어 도출해 볼 수 있겠다. 먼저 공통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직업에 대한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례 모두 결혼이민 전에 본국에서도 직장생활을 몇 년 동안 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 후 농촌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해당분야에 전문 인력으로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다. 사례 1은 지역여성이 출자금을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농촌이민여성단체였고, 사례 2는 가족인 시아버지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며 정부 서비스 기관은 주로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자가 운전이 가능하지 않는 한 정부 기관이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전문 인력으로서 필요한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증을 획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사례 1의 경우는 홈페이지 분야 미싱사로서 양장기능사 자격증 획득에 도전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교재와 필기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포기한 상태다. 사례 2는 포도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공인 자격증이 있지 않다. 다만 사례 2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불편했던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세 번 낙방하고 네 번째에 합격하여 힘들게 획득하였다. 따라서 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례 2는 현재 이동의 불편함은 상당히 해소된 상태다.

넷째, 결혼이민 이후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 습득을 두 사례 모두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TV를 보거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으로 습득하였다. 현재 말하는 의사소통에는 거의 어려움이 없고 웬만한 쓰기와 읽기도 가능하다. 그런데 운전면

허나 직업관련 전문분야 교재나 한국어 필기시험은 어렵다고 한다.

다섯째, 두 사례 모두 남편 또는 시부모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다. 사례 1은 남편이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시어머니도 동거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결혼이민 여성 며느리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례 2는 시부모의 지원이 컸다. 남편은 정신발달 수준이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이어서 주로 시부모의 지지가 있었으며 특히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 두 사례의 전문 인력분야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성공요인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이 홈패션 사업단에 취업을 하여 미싱사로써 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농촌이민여성센터라는 지역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홈패션 관련 기술을 직접 교육·훈련시켜 주었으며, 홈패션 사업단을 직접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일-가정의 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례 1이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례 2가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은 우선적으로 시부모나 남편 소유의 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포도농사를 지어온 노하우가 영농일지를 통해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자가 토지가 없었다면 농사를 짓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례가 향후 지속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지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는 농촌지역에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또 다른 결혼이민 여성과 한국인 여성들을 편안하게 만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은 지리적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결혼이민여성은 자가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시군지역 단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주로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결혼이민여성이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농

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으로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민부부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를 농촌지역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이동식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농협이나 주민자치센터가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초기정착 단계에서의 교육지원을 넘어서서 10여년 이상 경과된 이민여성을 위한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이나 직업관련 교육훈련 등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여성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맞는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교육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사례 3과 4를 통해 낮은 한국에서 직업적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주변의 인적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3은 농촌지역에서 처음으로 마을회관에서 식당을 운영 할 수 있던 점도 마을이장님으로부터 싼 보증금과 월세가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장님의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과 시누이와 옆집 언니, 동네 사람들의 정신적 지원과 지지가 자립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사례 4 또한 남편이 가사 일과 아이 양육 등 직장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둘째는, 직업관련 프로그램을 본인이 끊임없이 찾아서 이수하였다는 점이다. 사례 3은 식당을 할 때는 한국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문화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강하였고, 종로M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는 원어민강사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현재 한국인과 함께 어울려 일하고 있는 영상정보통합관계센터를 다니면서는 다문화센터 한글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례 4도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센터들을 이용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특히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뿐만 아니라 검정고시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어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정보 등을 통해 본인이 한국에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수

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취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본인의 직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주변의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두 사례 모두 본인 스스로가 직업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인적네트워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센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주기적으로 센터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한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였으며, 본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본인을 지원해 주는 센터 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센터에서의 만남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자국민들과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여 직업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인 공유하고 교류하고 있었다.

이상의 성공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두 사람 모두 한국생활에도 도움 되고 직업에도 도움이 되는 한국어 자격증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하지 못한다면 결코 직업을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지만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자격증이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다양한 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어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센터 결혼이민여성 국적 리스트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물질적 또는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적자원이 주변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직업관련 공식적 세계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다문화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외국인 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다음 센터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더 넓은 인적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 센터들에서는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센터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적별 리스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 결혼이민여성 주기적 만남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앞의 두 사례자 모두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과 그에 맞는 경력의 축적이 있었다. 처음부터 본인이 직업을 갖겠다는 강한 의지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강한 의지와 본인의 직무 경력은 지역 센터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프로그램 수료를 통해 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센터에서는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과 성공요인들을 공유하고 본인 스스로들의 경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제 5 장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정책과제

1. 연구요약

지금까지 농업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적·제도적 흐름과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의 필요성을 도출한 후,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정책현황과 이해관계자 인터뷰(FGI)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인식과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의 개념을 ‘결혼이민여성인’, ‘농업인’, 그리고 ‘전문인력화’의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 농촌사회의 주역으로 여겨지는 결혼이민여성을 미래 농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및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또한 제도적, 사회적 흐름 분석을 통해서 결혼이민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한국어 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과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이 강하고 연속성이 약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보다 다양하고 연속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더불어, 최근 농촌사회에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많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의 이농현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도시로 이농하지 않도록, 이들의 전문인력화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앞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에 대한 도농비교를 통해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필요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 건강상태, 생활 만족도 등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오히려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여성보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정착단계에서 어느 정도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기초교육 및 지원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취업상태인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어 및 일자리 관련 교육을 경험한 비율도 매우 낮았으며, 사회적 관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여성 스스로의 의지 혹은 가족의 도움만으로 초기정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중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 사회활동, 일자리 교육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가 뒷받침 해준다. 분석결과, 한국어 교육, 사회활동 교육, 일자리 교육이 모두 결혼이민여성의 지위 향상 및 전문분야 진입여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및 직업이동 경로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직 진입에는 한국어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사회적 관계형성 부문에 있어서는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 등의 요인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가공이나 유통관련 교육 및 민간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업지원 연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결혼이민여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 한국어 자격증, 전문인력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을 자신들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이 결혼이민 이후 농촌지역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요인을 공통요인과 구별되는 요인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먼저 공통요인을 보면 첫째, 성공사례 모두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해당분야에 전문 인력으로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다. 셋째, 전문 인력으로서 필요한 관련 기술에 대해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증을 획득하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결혼이민 이후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 습득을 두 사례 모두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TV를 보거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방식으로 습득하였다. 다섯째, 두 사례 모두 남편 또는 시부모의 이해와 배려가 있었다.

다음으로 두 사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사례 1의 경우, 홈패션 사업단에 취업하여 미싱사로서 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농촌이민여성센터라는 지역여성단체의 교육훈련, 일자리를 마련, 일-가정 병행이 가능한 근무시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반면 사례 2는 외부의 지원보다는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으로써 시부모나 남편 소유의 자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포도농사를 지어온 노하우가 영농일지를 통해 전수받을 수 있었다.

향후 두 성공사례에서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는 농촌지역에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또 다른 결혼이민 여성과 한국인 여성들을 편안하게 만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은 지리적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결혼이민여성은 자가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동성이 불편한 상황이므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초기정착 단계에서의 교육 지원을 넘어서서 10여년 이상 경과된 이민여성을 위한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여성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에 맞는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 주고 교육해주기를 희망하였다.

2. 정책과제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대상 정책현황, 실태조사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FGI)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전문인력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관계 부족, 낮은 한국어 수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화 총괄 기관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정책과제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5-1.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요약)

구분	문제점	정책과제
지원 체계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총괄 기관 부재	·지역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부족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확장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강화
교육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 특화 프로그램 부족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일원화된 교육체계 부재	·전문인력화 대상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 ·결혼이민여성 전문농업경영주 양성 ·결혼이민여성 예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적 농업기술에 편중된 교육 ·전문인력 진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소지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준비 교육 ·6차 산업 관련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확대 ·1:1맞춤 교육 개선
<p>결혼이민 여성 일자리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사회의 결혼이민여성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사회통합형 일자리 발굴 (결혼이민여성 농촌지도사, 결혼이민여성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 맞춤형/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와인, 버섯 등 지역특산물 가공전문가 등) ·결혼이민여성 관심형 일자리 발굴(열대작물재배 전문가 등)

2.1. 지역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산발적이고 획일화된 사업대신 통합적이고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사업간 연계의 부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의 조정역할이 미흡하고, 지방차원의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문인력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복합적인 솔루션을 효율적인 원스톱 지원을 하는 지역별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관련 사업담당기관,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물론 비영리기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등), 경제관련기관(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등), 심리상담기관(협회나 단체), 고용지원센터, 취업연계기관(새로일하기센터),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결혼이민여성 등 다양한 결혼이민여성 사업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연계 부족과 중복문제등의 비효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합리화를 통해서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효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방만한 사업운영의 지양과 비효율성 감소도 중요하지만, 선진사례 또는 효과성이 미비한 사례 등의 즉

각적인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각의 지역별 사업의 수정 및 보완 등의 환류작업(feedback)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농촌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적용하여 농촌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이다. 둘째, 지역 여성농업인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결혼이민여성인적자원개발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의 역할이며, 셋째, 지역산업 맞춤형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이다. 넷째,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수요와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역할이다. 다섯째, 지역의 협력적 교육지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이며, 마지막으로 지역의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수집과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역할
·미래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지역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역 여성농업인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간 연계성 확보
·지역·산업 맞춤형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
·지역에서의 고용창출과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
·지역 협력적 교육지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전략 수립
·지역의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이처럼,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일원화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기관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기관별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연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제활동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업단계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농협,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여 단계별로 연계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전문인력화 정책 대상 집단은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별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에 적합한 전문인력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2.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확장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민여성 개인의 적응 뿐 아니라, 농촌지역 인구 구성의 다양화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중시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에 결혼이민여성 증가가 지역의 다양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여성 집단의 사회적 고립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이선 외, 2010).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민여성이 농촌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 참여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 사회적 관계 형성이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등의 지원기관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인프라를 제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확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들이 지역사회 주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을 촉진시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보다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결혼이민여성이 전문인력에 진입하는데 한국인과의 교류나 만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은 각종 교육 및 행사프로그램이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들간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

장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관계 확장은 이들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의 확산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 사회의 인적자원 정보 획득 및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착단계별 다문화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천의 다문화적십자 네트워크가 좋은 예이다. 홍천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적십자 활동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한국인 적십자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적십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과정에서 통·번역사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천 사례와 같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통해 다문화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절한 정책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적지지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심이고,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는 지속성이 부족한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이라는 명칭처럼 지역사회가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높아,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인력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및 발전 단계 구축이 어렵다. 정책담당자 인터뷰에서도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자 수가 적고,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인력화 진입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예비 전문인력의 교육 효과 제고

를 위해서, 각 단계별로 사회적 지지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순차적 단계를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참가자 중에서 양질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늘고, 이 모든 단계를 거친 이들이 많아질수록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지고, 결혼이민여성들도 스스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높여 정보를 획득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2.3. 교육단계별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

결혼이민여성의 교육단계별 협력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성농업 인육성기본계획이 정착단계별 지원전략에 근거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전략이 부재하다. 먼저 교육단계별로 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결혼이민여성 집단의 정책수요는 교육훈련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진입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태 조사와 심층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인력화 대상 지원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등 그동안 초기 정착단계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들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과 기초실력(한국어 능력, 모국에서의 학력)을 갖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을 분류하기 위한 1단계 기초상담 후 > 2단계 수준별 교육 대상 분류 > 3단계 경제활동지원 기초 집단상담 교육(15시간: 5일 3시간씩) > 4단계 다문화 여성 특화 직업훈련 교육(160시간~200시간) > 5단계 취업지원 (새일센터가 담당) > 6단계 사후관리단계 까지 이음새 없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러한 6단계 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 구성 대상기관에 해당된다.

시범지역을 정해 시범 교육을 실시해 보고 보급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범지역은 다문화여성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가 대상이라면 농협과 연구원, 교육, 취업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협의를 거쳐 기초 집단상담 교육으로 직업의식교육, 직업능력 고취를

위한 경제관련 상식 교육 등을 실시하고(15시간), 고양시는 도농복합형이라 체험농원과 화훼관련 농원, 가구공장 등이 많으니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특화교육을 개발한다. 특히 화훼농원은 특별한 학력수준이나 능숙한 언어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실습위주의 교육을 하고 농원에서 인턴 실습 후 취업연계로 사업을 진행한다.

2.4. 결혼이민여성 농업경영주 양성

결혼이민여성 농업경영주 양성이다. 미래 ‘결혼이민여성 농업경영주’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 농업 경영주는 다양한 역량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인력으로써 농촌에서 농업의 다양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농업관련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 농업경영자들이 농업 그리고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그 자체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전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여성에게 농업, 재무, 노무, 사회적 관계 등 통합적 교육을 제공하고, 정착 단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3-5명) 반으로 장기간 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다문화 농업경영자로 키워 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선발 과정은 엄격하게, 선발된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5. 결혼이민여성 예비 전문인력 육성

결혼이민여성 예비 전문인력 육성이다. 결혼이민여성은 농촌에서 제일 젊고, 이들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지역에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인력들이고, 인터뷰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잠재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의

실무자들도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으나 이미 수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에 고민을 갖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젊은 인력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창업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농촌의 젊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적응하기 보다는 괜찮은 일자리나 전문인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농촌지역 거주민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활동(직업) 참여와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의 동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한국어 능력과 자격증 취득 방안을 함께 정책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어 능력은 농업종사자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자격증은 농업관련 자격증과 농업과 관련된 가공 또는 유통관련 자격증과 사회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전문인력화에 진입할 잠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반,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 필요하다. 접근성과 재정력이 좋은 농협이 시설과 재정을 담당하고, 정보와 인력이 좋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하는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농협에서 예비 전문인력 교육을 받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제활동인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준비 교육’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준비 교육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담당하는 업무를 알려주고, 각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직종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러한 협업시스템이 정착된 후, 사회통합형 일자리나 지역사회 맞춤형/기업 맞춤형 일자리 교육과 연계된다면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결혼이민여성 예비 전문인력 교육과 경제활동준비 교육의 연계는 지역사회 적응,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경제활동참여욕구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결혼이민여성 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초인력 배양

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지원제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경제활동 진입 기초 집단상담 교육도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커리큘럼 등은 결혼이민여성 관련해서 좀 더 조사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일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적용이 어렵다. 일반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연구진이 일 년 동안 심층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이 부족한 농촌지역 특성상, 6차 산업 추진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에게 특화된 가공 및 판매 부분의 일자리 수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결혼이민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들이 결혼이민여성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촌형 새일센터는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새일센터들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향후 농촌여성들의 6차 산업분야에서 전문인력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농촌형 새일센터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

2.6. 1:1 맞춤형 교육 개선

농업교육 중 대표적인 전문인력 지원 제도인 1:1 맞춤형 교육 개선이다. 1대 1 맞춤형 교육에서 3인 1조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1대 1 맞춤형 교육은 멘토가 한국여성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농업분야 전문인력으로 진입하게 하는 제도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1대 1로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조정자가 없고, 농업관련 용어도 일상생활 한국어 용어와는 다르고,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1:1 맞춤형 교육의 실제적인 효과나 교육 진행 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1 맞춤형

춤형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응답자 모두 한국어가 능통한 같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국가 출신 결혼이민여성을 1:1 맞춤형 교육에 참여 시킴으로써, 멘토와 멘티 간 소통과 상호 간의 신뢰를 높여주고 교육의 성과도 높일 것이다. 지원인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로 서포터즈라는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포터즈 기존 활동 중에 신규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부분이 있으니 교육대상자 발굴과 관련해서는 서포터즈 활용이 가능하다. 즉, 서포터즈가 1:1 맞춤형 교육에 적당한 대상자를 찾아내서 농협에 연계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농협에 연계한 이후에 서포터즈도 맞춤형 교육에 함께 참여한다. 1회 교육시간이 4시간이라도 서포터즈가 함께 참여해 교육을 이수한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사업으로 두 명의 전문인력이 탄생 할 수도 있다. 서포터즈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상자 발굴 전문가로, 대상자들은 농업전문 인력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포터즈가 왜 1:1 교육을 함께 받아야 하는지 교육과 함께, 농업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연관성, 중요한 점 등을 골자로 교육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격려하는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 서포터즈들에게는 농촌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고, 교육을 마치고 어떤 기준에도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서포터즈의 인적자원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7. 사회통합형 일자리 발굴

지역사회 내 분야별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무직이나 관리자와 같은 화이트칼라 직종에 근무하는 비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에서 단순 노무직은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직종이지만, 더불어 결혼이민여성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사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분야를 활용한 직종의 경우, 결혼이민여성 농촌지도사 육성 및 채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번역사 이후 장기교육을 통한 괜찮은 사회통합형 일자리 발굴로 ‘희망의 사다리’이어가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전문인력 집단에 진입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를 이어가는 지원전략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사회통합형 일자리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공동생산(Co-Production) 일자리 마련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술센터의 국제화 역량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교육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이들을 통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채용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여성 농촌지도사들은 1:1 맞춤형 교육 대상자 사후관리 역할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사들은 교육대상자들이 필요한 사후관리(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후 교육 대상자가 가능한 활동을 하는지, 취업이나 농업에 접근해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농업 혹은 기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 인간관계기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훈련이 되어 있는 인력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여성 농촌지도사는 결혼이민여성 교육대상자의 사후관리,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교육대상자들이 농업 부분에 계속 종사하고 유지에 필수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교육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에게 농촌지도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 이주여성에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게 하더라도 제한적인 직업만 갖게 한다면, 그들의 자아실현이나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경제상황이 불황인 경우에는 일자리의 안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성적이 훌륭하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7급 견습

공무원 채용시험처럼 기관 내에서 자체 선발 후 서류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의 경쟁 유도과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채용 규모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국 농촌지도사의 2016년 선발인원이 221명인 것을 고려하여 최대 100명 내외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민간분야에서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에 적합한 사회통합형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은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다문화 강사, 요양 보호사, 도배사, POP강사, 미용사, 관광가이드, 대형마트 물품 정리원·검침원과 안전 점검원, 지역특산물 제조사, 바리스타, 의류 수선사 등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결혼이민여성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 대부분이 시부모와 함께 거주한다. 시부모의 연령도 높지만, 배우자인 남편의 연령도 높은 편이다. 결혼이민여성 역사가 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인 남편의 연령 또한 많을 것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으로 자기 시부모도, 남편도 케어하고 다른 결혼이민여성의 시부모도 같이 보살핌을 제공하면, 고령화에 사회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지역에 공헌하는 일자리에 진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진흥하기 위해서, 이주여성 위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역별로 개발하고 육성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존재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사회적 기업 인증에 이르는 기간은 대략 5년 정도로 예상되며 이런 절차에는 법률, 회계 등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이주여성들만으로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의 지원여부는 이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 요양보호사 사회적 협동조합의 행정, 경영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이주여성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과정도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8. 지역사회 맞춤형/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기업맞춤형 일자리로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6차 산업 관련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종이 제조업(지역특산물 제조사)이다. 지역별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맞춤형/기업맞춤형 지역특산물 제조 일자리를 발굴하고, 농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농업기업 수요에 맞게 결혼이민여성들을 교육훈련을 시켜주고, 농업기업에 연계시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차 산업 가공관련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영동군의 경우 포도, 곱감, 버섯 등이 유명하며 가공을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가공부분이 영세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고령자 위주로 전문인력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영동에 기업형 와이너리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중국분들이 방문하여 통역사 2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영동군에서는 통역도 하면서, 판매가 가능한 소물리에 교육을 통해서 중국,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에게 일주일에 4일은 가공 업무에, 하루는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특화된 직종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사회 맞춤형/기업맞춤형 일자리 발굴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와 지역사회 맞춤형/기업 맞춤형 일자리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수강하게 하고, 교육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수강하는 결혼이민여성 농업인에게는 자비 부담을 면제하고, 훈련비(1년간 200만원 한도)와 훈련 장려금(월 최대 116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통합형 일자리와 지역사회 맞춤형/기업 맞춤형 일자리 교육 참여자는 결혼이민여성 예비 전문인력과정과 경제활동준비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상기의 교육을 이수하고 6차 산업 기업에 취업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제도의 공고화를 위해서 정부가 이 교육을 이수한 여성에 한하여 결혼이민여성 인턴제(가칭)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여성의 취업은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보장 및 감독하고, 실제 운용은 각 지역의 여성센터들과 지자체 위주로 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턴을 위한 교육비는 기존의 인턴제에 준하는 수준에서 기업의 인원수에 따라 35-45만원 정도의 지원과, 임금지원과 관련해서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원하여 기업에서의 정착에 실효성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9. 결혼이민여성 관심형 일자리 발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 출신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이민여성 일자리의 다각화를 위해서 열대작물재배 교육과정 및 교육이후 사업을 통합하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필요해 보인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양한 농촌행위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활용되기 어려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다. 농촌에서는 휴경지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열대작물의 재배기술을 지닌 이주여성은 토지가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둘의 접점이 없는 것과 휴경지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주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참고 문헌

-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 66-80.
- 국미애(2015).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의 일 경험 분석을 통한 지속고용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 가족여성재단.
- 김경아(2012).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분석 : 이주여성의 정책인지수준과 지역사회 다문화태도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381-409.
- 김기홍·허태영·황명진(2011).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정·염동문(2015).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31(3): 1-25.
- 김승권(2010).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혜·손기영·박상희(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1호.
- 김이선·정혜숙·이정덕(2010).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V)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중선(2014).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 과학기술정책 24(2): 24-36.
- 농림축산부(2015). 2015년도 이민여성농업인 1:1맞춤 농업교육 추진계획.
-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269-302.
- 박영민(2015). 농촌지역발전사업의 성과와 결혼이주여성 참여의 영향관계: 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3): 1-27.
- 박재규(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농촌경제 29(3): 67-84.
- (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GRI 연구논총 15(1): 5-33.
- 배경희(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3): 5-27.
- 배옥현(2015). 경상북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와 역량강화. 다문화와 인간 4(1): 53-86.
- 부산인적자원개발원(2007). 여성결혼이민자 자활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GROW".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서민숙·박경숙·박형무·박현옥(201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 *대한폐경학회지* 19(2): 112-121.
- 심인선(2008). 경남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실태 및 정착 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양순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지원 정책 개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양순미(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 양인숙·민무숙·김선혜(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16). 201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장관(2016). 여성 취·창업 지원 종합정보. 여성가족부.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규용(2012).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방향. *노동리뷰* 8월호.
- 이은주(2014).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사회정책* 21(4): 9-44.
- 이인재·이문국·김정원·강병노(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태정·이용수·신현구·김명수(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21-44.
- 이형하(2012).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의미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7(3): 143-155.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석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64-387.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기환·최경환·이호철(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용만·박성범(2013). 국제결혼이민자의 조기 사회통합증진 방안연구. *국제정치논총* 53(3): 465-502.
- Liu, M. F., Chung, H. H., & Hsu, M. T. (2001). Adaptation of foreign brides in Taiwan: Implications for nursing. *The Journal of Nursing* 48(4): 85-89.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2014-2016)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기업육성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국가지표체계 홈페이지 www.index.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is.g.kr
 여성농업인신문, 2012-5-23. “이주여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다-전북 익산시 (사)농촌이민여성센터 ‘두리두레 사업단’” <http://women.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4>에서 2016.11.4. 인출

E20-2016-4

결혼이민여성 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인 쇄 2016. 12.

발 행 2016. 12.

발 행 인 김창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061-820-2000

<http://www.krei.re.kr>

작성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cree1775@hanmail.net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